



2004 | January | **01**

SBS 목동 신사옥 첫방송
SBS 2004 新사옥 대기획
2004 신년대기획 환경의 역습
특별기획 발리에서 생긴 일
커버스토리 하지원

SBS magazine

2004 01

CONTENTS

Humanism thru Digital

SBS 대표인 사육
물은 생명이다



SBS 목동 디지털시대 개막 04



2004 신년대기획 「환경의 역습」 14



특별기획 「발리에서 생긴 일」

Special & Feature

04 SBS 목동 디지털시대 개막 | 목동 신사옥 첫방송

새해 첫날 SBS 목동 방송시대 개막을 알리는 첫방송, 「생방송 모닝와이드」가 목동시대의 개막을 열었고, 특별 생방송 「희망! 2004」에서는 SBS의 지난 13년을 돌아보고, 신사옥에서 새롭게 전개될 꿈과 비전을 희망의 메시지로 쏟아올렸다.

10 SBS 2004 新사옥 대기획

새로운 출발과 함께 재도약을 선언하는 SBS의 꿈과 비전을 그대로 담고 있는 대기획, SBS의 역동적인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신선한 기획이 다채롭고 풍성하게 마련되어 있다.

24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희귀질환과 장애로 인해 음식에서 숨죽이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희망을 심어 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희망의 기적'을 일궈온 프로그램의 이모저모와 환아 가족들의 청와대 방문현장을 소개한다.

Program

14 신년특집 다큐멘터리 | SBS 2004 신년대기획 「환경의 역습」 도시인의 생활터전인 삶의 환경이 우리 몸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내 대안을 제시하는 최초의 다큐멘터리 보고서!

18 새 드라마 | 특별기획 「발리에서 생긴 일」

하지원, 소지섭, 조인성, 박예진 등 화려한 출연진이 그려가게 될 사랑과 욕망의 드라마, 네 젊은이의 엇갈린 운명과 사랑을 통해 생(生)의 진정한 의미를 탐색하게 된다.

27 프로그램 탐험 | 「TV 장학회」

오락과 교양, 일반적인 상식을 뒤엎는 정보 퍼레이드, 「TV 장학회」에는 유쾌한 웃음과 훈훈한 감동이 있다.

34 라디오 세상 | 러브 FM 「김흥국 · 박미선의 대한민국 특급쇼」

두 진행자의 왁자지껄한 너스레로 유쾌한 퇴근길을 열어주는, 서민에 의한, 서민을 위한 방송.

Cover Story

30 「발리에서 생긴 일」의 하지원

다시 태어난대도 배우가 될 거라고 말하는 하지원. 그녀는 배우라는 직업이 지닌 매력을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연기자이다. 「발리에서 생긴 일」의 '수정' 역으로 또 다른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하지원, 발리의 태양빛으로 돌아온 그녀가 지금 시린 겨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사진 | 조광희

People

36 Jump Up 2004! | 「천국의 계단」의 김태희

연기변신의 절정을 달리고 있는 김태희의 새해 목표는 배우로서의 '섬세함과 순수함'을 갖추는 것

38 Jump Up 2004! | 「웃음을 찾는 사람들」의 김늘메

인기정상을 달리고 있는 개그맨 김늘메의 개그아이디어 포인트와 새해 소망을 들어본다.

45 「2003 SBS 개그콘테스트」의 수상자들

대상을 차지한 '단무지 브라더스' 팀을 비롯해 7개 팀 25명의 신인 개그맨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Regulars

40 SBS 미디어넷 | 도약의 2004년!

42 클릭! 인터넷

44 727 멤버십 1월 소식

46 TV & 라디오 편성표

49 방송과 영화의 만남 | 1월의 개봉영화 「빙우」

50 설날 연휴를 SBS 영화와 함께

SBS magazine 2004년 01월호

통권 제146호 2004년 1월 1일 발행 월간 비매품 1991년 11월 23일 등록 등록번호 서울 라-5316 ● 발행 · 편집인 | 송도균, 주간 | 안국정, 부주간 | 이근용, 기획 | 신선화, 사진 | 서창식, 조광희, 김연식 ● 발행처 | (주)SBS 150-0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0-2, 전화 786-0792, 780-0006 ● 편집 · 디자인 | design_be, 전화 780-4307 ● 인쇄 | (주)교학사 ● 출력 | 거호 프로세스 ● 「SBS 매거진」에 실린 기사와 사진 등 모든 내용은 (주)SBS의 동의 없이 옮겨 사용할 수 없습니다. ● 「SBS 매거진」은 인터넷(www.sbs.c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SBS 목동 디지털시대 개막

SBS 신사옥 이전 첫방송, 새 시대를 연다!



새해 첫날 SBS가 목동 신사옥에서 첫방송의 전파를 쏘아올렸습니다. 오는 3월 1일 이전을 완료하고 목동시대를 시작하게 될 SBS는 새

해를 맞이하며 신사옥에서 일부 프로그램의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1월 1일 그 첫방송의 현장에는 21세기 고화질 방송을 시청자들에게 전할 최첨단 디지털 방송센터 SBS 신사옥이 드디어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뉴미디어의 선두주자로 21세기 다매체 다채널 시대를 이끌어 갈 SBS는 제작에서 송출까지 모든 과정이 디지털 시스템으로 마련된 SBS 신사옥에서 고품질, 고품격의 방송을 선보일 것입니다. 이전을 완료하고 신사옥에서 새로운 역사를 열게 될 3월을 기대해 주십시오!





2004년 새해 첫날, SBS가 새롭게 마련한 목동 SBS 신사옥에서 첫 전파를 쏘아올렸다. 1월 1일 아침 6시 「생방송 모닝와이드」를 시작으로, 8시 30분 신사옥 이전 특별 생방송 「희망! 2004」, 저녁 6시 「생방송 투데이」를 신사옥에서 제작, 방송하였고, 「SBS 8 뉴스」를 신사옥을 배경으로 한 야외 오픈 스튜디오에서 방송하며 SBS 목동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신사옥 이전 특집방송은 올 3월 그랜드 오픈을 앞두고 이날부터 「생방송 모닝와이드」와 「생방송 투데이」, 두 프로그램이 신사옥에서의 방송을 시작하며 마련되었다. 새해 첫날 특집방송을 통해 첫선을 보인 SBS 신사옥은 다가올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방송, 통신, 컴퓨터가 통합된 최첨단 디지털방송 네트워크를 구축한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첫 신고식을 화려하게 치렀다.

지상 22층, 지하 4층 규모의 SBS 신사옥은 자연친화적이며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비된 내부 인테리어와 절제된 세련미가 돋보이는 통유리의 외관 등으로 꾸며져 지난해 12월 완공되었다. 건물 전체가 하나의 디지털화를 꾀하고 있으며 보도, 교양, 스포츠 등의 프로그램이 제작될 8층 규모의 스튜디오동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디지털 자동화 시스템이 갖춰진 주·부조정실과 첨단장비로 무장한 뉴스센터, 보다 다양한 화면의 뉴스를 전하게 될 360도 회전 방식의 오픈 스튜디오 등 고품격, 고품질의 방송을 선보일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신사옥의 모닝와이드 스튜디오에서 첫방송된 「생방송 모닝와이드」는 1부의 진행자 박상규 기자와 박은경 아나운서가 신사옥 앞에





새해 첫날, SBS가 목동 신사옥에서 첫 전파를 쏘아올렸다. 아침 6시 「생방송 모닝와이드」를 시작으로, 8시 30분 신사옥 이전 특별생방송 「희망! 2004」, 저녁 6시 「생방송 투데이」가 목동 신사옥에서 제작, 방송되었고, 「SBS 8 뉴스」는 신사옥을 배경으로 한 야외 오픈 스튜디오에서 방송하며 SBS의 목동시대 개막을 알렸다.



서 첫방송 축하 오프닝을 하며 시작했다. SBS 신사옥 첫방송의 포문을 연 두 진행자는 'SBS가 최첨단 방송시스템을 갖춘 신사옥에서 21세기 다매체 다채널 시대를 이끄는 뉴미디어의 선두주자로 계속 앞장서며 시청자들의 사랑에 발로 뛰며 보답할 것' 임을 약속했다.

우선 1, 2부에서는 스포츠 스타들의 신사옥 이전 축하 메시지, 2004년 한국경제 전망 등 다양한 특집 코너들이 마련되었다. 3부는

신사옥 이전 축하공연 '난타'로 힘차게 시작해, 인기 개그맨 김늘메와 김미진이 신사옥의 곳곳을 살펴보고 최첨단 방송센터를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원송이퍼 연예 스타들의 축하 메시지, 「모닝와이드」 새해 프로젝트 '아메리카 대륙 13만 킬로미터 남북 종단 대탐험' 첫편이 공개됐다.

이어 방송된 신사옥 이전 특별 생방송 「희망! 2004」는 「야인시대」의

안재모와 「생방송 한밤의 TV연예」 MC 박정아, 2003년 올해의 아나운서로 선정된 윤현진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펼쳐졌다. 신사옥의 중앙 로비를 메인 세트로 활용해 새로운 구성을 선보인 「희망! 2004」는 신문선 축구 해설위원, 아침뉴스 김성준 앵커, 「그것이 알고 싶다」 진행자 정진영, MC 유정현, 리포터 조영구, 정지영 아나운서, 2003 SBS 신입 아나운서와 슈퍼모델, 신인 탤런트 등 SBS 13년 역사에서 시청자와 희로애락을 함께 한 대표적인 인물들을 패널로 초청해 SBS 신사옥 첫방송을 축하하며 SBS 프로그램의 13년 역사를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SBS 특종 13년, SBS와 함





뉴미디어의 선두주자로 21세기 다매체 다 채널 시대를 이끌어 갈 SBS는 제작에서 송출까지 모든 과정이 디지털 시스템으로 마련된 SBS 신사옥에서 고품질, 고품격의 방송을 선보인다.

계 한 스타들, SBS 진기록 베스트 등 특집코너들과 이제 신사옥에서 새롭게 펼쳐갈 SBS의 비전이 제시되었다. 특히 양천구민들이 방청객으로 초대되어 SBS 신사옥의 양천구 목동 이전을 축하해주었고, 첫방송을 기념하는 떡을 주민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정겨운 자리도 마련됐다.

디지털시대, 디지털뉴스의 신기원

한편 저녁 6시에는 「생방송 투데이」가 'SBS 목동시대 개막-신사옥을 공개합니다', 'SBS 여의도시대에서 목동시대로!' 등 특집 코너를 마련해 목동 신사옥 이전 특별 생방송으로 65분간 방송되었다. 또한 「SBS 8 뉴스」는 신사옥을 배경으로 야외에 오픈 스튜디오를 설치해 특집방송을 실시했다. SBS 뉴스는 오는 3월부터 디지털 제작 시스템을 통해 보다 빠르고 정확하고 심층적인 뉴스를 전하며, 국내 최초로 360도 회전 방식의 오픈 스튜디오를 마련해 더욱 다양한 화면을 선보일 수 있게 되었다. 이날 뉴스에서 이선명 뉴스디지털팀장은 “지상파로서는 세계 최초, 최대 규모로 뉴스 제작과정을 100퍼센트 디지털화했다”고 밝혔다. **SBS**

사진 | 서창식



SBS 제 2의 탄생,

대기획

I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新사옥 특별기획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신사옥 이전을 맞아 3월 1일~7일(신사옥 그랜드 오픈 주간)에 시청자와 함께 사옥 이전을 축하하고, SBS의 비전과 시청자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는 특집 프로그램!

◎ HD 방송 29시간 특별기획

● 특집 생방송, 특집 다큐, 특집 드라마, 대형 이벤트 및 쇼 등으로 종합 구성. 전 과정을 HD 방송하는 한국 방송사상 최장의 특별 기획을 마련한다.

◎ 특집 스페셜 〈시청자와 함께 한 13년〉

● 시청자가 뽑은 SBS 드라마 베스트, 다시 듣고 싶은 노래, SBS가 배출한 스타 등 다양한 형식의 특집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SBS 홈페이지를 이용해 시청자 응모, SBS와 공동 추진한다.

〔SBS 대하드라마 「장길산」 「폭풍 속으로」 「토지」〕

◎ SBS 대작 드라마의 맥을 잇는 새로운 형식의 대하사극 「장길산」

(원작 | 황석영, 극본 | 이희우, 연출 | 장형일)

◎ 신사옥 이전 특별 기획 「폭풍 속으로」

(극본 | 최완규, 연출 | 유철용)

● 서로 대별되는 두 형제의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을 통해 사랑과 야망의 의미를 재조명해 본다.

의 를 엽니다

SBS는 2004년에 목동으로 사옥을 이전하면서, 새로운 출발과 함께 야심에 찬 재도약을 선언합니다. 사옥이전 기념으로 마련된 이번 대기획에는 지난 13년의 역사를 발판 삼아 시청자들과 함께 '희망의 미래'를 역동적으로 열어가려는 SBS의 꿈과 비전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목동 신사옥에서 펼쳐가게 될 SBS의 미래,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우리 문학사의 금자탑 박경리 원작의 「토지」

(원작 | 박경리, 연출 | 이종한)

- 소설 완결 이후 최초로 5부작 전체를 드라마화 한다.

2004 SBS 목동 페스티벌

◎ 〈시청자가 뽑은 한국인의 노래 70년〉

- 한국인의 혼이 담겨 있는 노래들의 시대적 배경과 노랫말의 사회학적 분석을 시도한다.

◎ Well-Being 박람회

- 시청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정보제공의 장(場)으로 목동운동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 월드스타 베스트 10

- 세계의 톱스타들을 초청해서 축하 무대를 펼치고, 이들을 모방한 국내 이미테이션 가수들과 경연하는 Big Show!

◎ 코미디 대축제

- 100여 팀의 국내·외 코미디, 퍼포먼스, 판토마임, 저글러, 마술팀 등을 초청해 천막극장에서 시리즈로 공연한다.

◎ 〈뮤직 페스티벌〉

- 트로트, 포크, 재즈, 록, 크로스오버 등 각 장르의 음악 공연.

스포츠 빅 이벤트 아테네 올림픽

◎ 차별화된 스포츠 중계방송

- 올림픽의 발상지이자 근대 올림픽이 처음 개최되었던 곳에서 108년 만에 사상 최대의 지구촌 축제로 치러지는 아테네 올림픽 경기를 '스타의 약속' 등 차별화된 아이템을 통해 방송한다.

◎ 생방송 기획 이벤트 「바이 코리아」

- 대한민국의 맛과 문화를 세계인에게 알리는 국가적 이벤트를 생방송한다.

◎ 다큐멘터리 「지중해 대탐험」

- 특집 다큐멘터리 5부작. 중동, 북아프리카, 남유럽의 문화가 혼합된 '문화의 용광로'에서 살아가는 지중해인들의 삶을 탐사한다.

시청자와 함께 하는 대형 문화축제

고품격의 문화예술 공연으로 대 시청자 서비스

◎ 디즈니 뮤지컬 「미녀와 야수」

- 디즈니의 초대형 브로드웨이 뮤지컬로 브로드웨이 제작진이 직접 제작. 대중성과 예술성을 갖춘 퍼포먼스로 보다 완성도 높은 공연이 될 것이다.

◎ 볼쇼이 발레단 내한 공연 「백조의 호수」

- 세계적 명성을 지닌 볼쇼이 발레단이 화려하고 스케일 큰 정통 클래식 발레를 선보인다.

◎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

- 세계적인 거장 로린 마젤의 지휘! 이번 공연에서는 한국의 대표 피아니스트 백건우와 협연할 예정이다. 최고의 오케스트라와 세계 정상급 피아니스트와의 멋진 하모니!

II

디지털이 세상을 바꾼다

국내 최초 《뉴스 디지털 혁명》

최첨단 디지털 방송 제작 인프라 구축
국내 최초 뉴스 디지털화, 시청자 위주의 고품질 뉴스 제공

◎ 특집 「SBS 8 뉴스」 - 〈뉴스의 혁명 선언〉



- 뉴스 디지털 제작 방식, 오픈 스튜디오를 소개한다.

◎ 특집 다큐멘터리 3부작 - 「디지털이 세상을 바꾼다」

- 디지털의 개념과 파장, 세계 각국의 디지털 진행 상황 등을 다큐멘터리로 구성한다.

브로드밴드 코리아, SBS가 함께 열어갑니다

디지털 프론트 SBS가 '브로드밴드 코리아' 정책과 연계해 '비주얼 시나리오'를 시연하며 테크놀로지 비전 제시에 주력!

◎ 이벤트 〈브로드밴드 코리아〉

- 신사옥 이전 기념으로 차세대 IT 비전을 제시하는 이벤트

◎ 특별 좌담 「방송과 브로드밴드의 미래상」

- IT와 방송산업 리딩 컴퍼니(마이크로소프트, 인텔, 휴렛팩커드, MSNBC, MIT 미디어랩 연구진 포함)의 경영진과 함께 '방송과 브로드밴드의 미래상'을 진취적으로 제시한다. 국내·외 VIP를 초청한 특별 좌담도 기획할 예정이다.

◎ 「디지털시대 100가지가 변한다」

- 디지털시대를 맞이하며, 유·무형의 급속한 변화를 제시하여 사고전환 필요성을 강조한다. 사회의 주요 요소들이 10년 후에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10년 전 현재와 비교 검증하며, 변화의 트렌드를 예측해 본다. 생방송으로 고속철도 내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III

대한민국에 희망을

2004 대한민국 아젠다 《이제는 2만불이다》

우리나라 경제 대오락을 위한 SBS의 대국민 캠페인
경제 분야 뉴스 취재 및 제작, 획기적으로 강화!

◎ 연중 캠페인 'NEW KOREA :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잘 사는 나라, 프로그 많은 나라가 선진국이다'

- 기업을 힘들게 하는 요인, 기업가 정신을 갉아먹는 사례들을 적시하고, 기업이 잘되면 좋은 점을 CF식으로 간략하게 제시한다.

◎ 「SBS 8 뉴스」 등 경제 관련 기획 시리즈 신설

◎ 경제 관련 특집 수시 편성

◎ 경제 중심의 「시사 매거진」 프로그램 신설

정치 개혁 '깨끗한 정치, 국민이 바꿉니다'

국가 발전을 위한 특집 기획 프로그램과 대토론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지향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깨끗한 정치문화 조성

◎ SBS 개표 방송 「2004 국민의 선택」



- 다양한 기획아이템과 최첨단 예측시스템 가동으로 앞서가는 선거방송을 이끈다.
- 완벽한 '출구조사'를 통한 선거판세를 분석 보도한다.

◎ 정치 발전 대토론회

- 월 1회 국민과 정치권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정치 개혁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특집 '깨끗한 정치, 국민이 바꿉니다'

- 정치 개혁을 위한 아젠다 설정
- '여론조사' 병행 실시

IV

아이들에게 미래를

(SBS 환경 10년 프로젝트

◎ 대국민 약속 <물은 생명이다> - [4] '안양천 살리기'



● SBS 대국민 10년 약속 '물은 생명이다' 캠페인 4년차를 맞아 정규 프로그램과 캠페인 이외에도 '안양천 살리기' 행사를 적극 추진한다.

◎ 2004 「자연으로 돌아간 반달곰」[3]



- 10년 장기 연속 시리즈로 지리산 반달곰이 동면에서 깨어나는 현장을 생중계 한다. (3월)
- 러시아 반달기슴곰 6마리를 추가로 방사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8월)

(연중 캠페인 <시민들에게 한뼘의 쉼터를>

서울시, 각 구청과 협력해 놓고 있는 자투리땅을 공원화하여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공익성 캠페인

(〈청계천 대역사〉 SBS와 함께

2005년 완공 예정인 청계천 복원공사의 성공을 위해 SBS가 앞장선다.

◎ 청계천을 가로지르는 다리공사를 서울시와 함께 국민성금으로 짓는 이벤트

◎ 「강북이 바뀐다」 「청계천 복원 이후의 서울-이렇게 바뀌어 가자」 등 특집을 마련한다.

(자연을 생각하는 SBS 다큐멘터리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모색하는 기획 다큐멘터리

◎ HD 자연 다큐멘터리 「최후의 야생-고슴도치, 족제비」

●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고슴도치와 족제비의 일생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우리 숲의 고화질 파노라마

◎ 자연 다큐 「마지막 사냥꾼-살」

● 고양이과 야생동물로는 유일하게 야생에서 생존하고 있는 살을 국내 최초로 영상 취재

V

참여하는 시청자

(시청자가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시청자 만족 지수> 실시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직접 평가,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프로그램 기획과 제작에 시청자가 직접 참가하는 기회를 제공. SBS 프로그램의 '품격' '유익' '재미'를 이끄는 지렛대로 활용하게 된다.

(시청자 모니터賞 제정

시청자들의 외부 비판도 겸허하게 수용해 열린 채널로 개방한다.

◎ 일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시청자 모니터賞 제정

SBS 2004 신년 대기획

환경의 역습

신음하는 도시문명, 환경친화적 대안과 처방을 찾아서...

연출 | 박정훈, 글·구성 | 정희선, 방송 | 1월 3, 10, 11일 밤 10시 55분(3부작)



1

문명의 파괴에 속수무책으로 휘둘러온 환경의 역습이 전개되고 있다. 잠시, 문명의 질주를 멈추고, 환경의 신음 소리에 귀를 기울여볼 일이다. 「환경의 역습」은 약 1년 2개월 간의 제작기간 동안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호주 등 세계 여러나라 전문가와 일반인 수백명을 만나며 생생한 현지 취재를 통해 완성됐다. 비만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제시했던 「육체와의 전쟁」, 자연분만 열풍을 몰고 온 「생명의 기적」, 채식의 중요성을 일깨운 「잘 먹고 잘사는 법」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박정훈 프로듀서가 이번에는 국내 방송 최초로 도시 생활이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1. 항생제 내성균으로 목숨을 잃은 아이의 사진
2. 마스크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미국의 화학물질 과민증 환자
3. 화학물질 과민증으로 취재진과 거리를 두고 있는 미국의 한 여성
4. 35년간 화학물질 과민증으로 고통 받은 미국 보스턴의 한 할머니
5. 학교에서 피폭된 화학물질 때문에 일상 생활에서도 마스크를 사용해야 하는 일본의 한 학생

2

편집에 한창 몰두하고 있던 어느날 새벽. 함께 일하는 정희선 작가가 반쪽이 된 얼굴을 하고 나에게 물었다. “저야 처음 해보니까 몰랐다 치고, 부장님은 두 번씩이나 1년짜리 프로그램 해봤으니까 이렇게 고생한다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또 제작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머리가 좀 이상한 거 아니예요?”

그녀의 말을 듣고 나니, 순간 매우 미안한 감정이 밀려왔다. ‘별써 한 달이 넘도록 밤샘작업을 하고 아침에야 퇴근하는 일정을 감당해온 그녀의 인내에도 드디어 한계가 왔구나. 아편면 안 될 텐데...’ 그러나 그때의 심정은 진심으로 그녀의 건강을 걱정해주는 마음보다는, 아마 일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된다는 마음이 더 컸을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한 달은 더 강행군해야 했기 때문이다.

다음 날, 내가 ‘철의 여인’이라는 다큐멘임을 붙여준 정 작가가 마스크를 하고 나타났다. 그리고 옆에서 계속 훔쳐거리며, 콜록 콜록 기침을 해댔다. “괜찮아요?” “다 제 팔잔데 어찌겠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아침 6시에 호느적거리며 집으로 돌아가야 했던 그녀는 역시 최고의 프로다.

환경 다큐멘터리 PD의 열정

정 작가가 나에게 던진 그 질문에 대해 나는 당시 이렇게 답을 했던 것 같다. “건방지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런 환경 프로그램은 내 주변엔 나 말고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이 프로그램은 어차피 내가 할 수밖에 없는데, 프로그램을 적당히 하려면 구태여 또 내가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열정적으로 일 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많은 할 일 뇌두고 적당히 하면서 적당히 만족하는 PD 생활을 할 바에는 아예 안하는 게 낫지요.” 이런 자만심에 가득 찬 이야기를 새벽에 강변하며 늘어놓았는데, 이혼 상태에서 듣는 정 작가가 당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하고 나니 좀 부끄럽기는 했다.

내 주변의 PD들 대부분이 그렇지만, 나에게도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행위는 내가 누리는 것들을 거의 포기해야 한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포기해야 할 것에는 아버지로서 또는 남편으로서의 의무생활과, 친구나 지인들과의 교제를 비롯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활동, 강의, 기고 등의 대외적 활동, 휴가나 휴일에 놀러 가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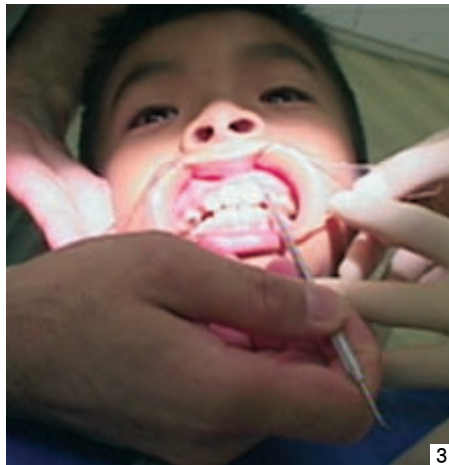
3



4



5



등 모든 사적인 활동의 중단을 의미한다. 사실 프로그램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방송이 나가게 마련인데도, 내가 이런 식의 사회적 '왕따'를 자초하는 데는 말 못할 나만의 이유가 있다.

스스로에게 이런 배수진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는 남들보다 부지런하지도 않고, 머리도 나쁘며, 또 쉽게 현실과 타협하고 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나 스스로 잘 알기 때문이다. 이런 나와 같이 일하는 다른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고달프겠는가. 프리랜서 작가진은 1년 간의 노동량에 비하면 그야말로 쥐꼬리만한 보수를 받으며 멸사봉공해야 하고, 신혼의 조연출은 평생 잊지 못할 '살인적 일의 추억'을 만들고 있다.

내가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글에 왜 나의 이런 괴팍한 치부를 드러내는 가하면 「환경의 역습」이 이러한 생활의 극단 속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지 않고 고상한 프로그램 자랑 얘기만 늘어놓으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욕할 것 같기 때문이다. 사실 그들의 고혈을 축

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나의 제작 관행에 대해 먼저 사과하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내 맘도 좀 자유스럽기 때문이기도 하다.

환경문제 정면돌파!

환경에 대한 다큐멘터리는 시청자들이 외면하기 쉽다. 환경이라는 말만 나와도 사람들은 골치아파하고, 자신의 절박한 현실의 삶과는 좀 거리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이 프로그램에서 환경문제를 정면 돌파해 보기로 처음부터 작정을 했다. 그 목표는 실로 원대하고 엄청났는데, 말이야 누가 못하겠느냐마는 잠시 소개하고 넘어갈까 한다. 보이지 않는 주제를 가지고 눈에 보이게 만들기, 신선한 주제의식으로 접근하기, 그것도 재미있고 현실감 있게 만들기, 작품성과 의미도 국제적 기준으로 손색없이 만들기... 등등.

기왕 내친김에 좀더 얘기하자면, 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의 환경의식을 완전히 업그레이드시키고 말 것이라는 포부까지 세웠다. 게

1. 숲의 효용을 측정하는 일본 삼림연구소의 실험
2. 유기농으로만 급식을 실시하는 일본의 중학교
3. 농약에 피폭되어 영구치가 나지 않는 일본의 한 아이
4. 친환경 축산물 생산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 항생제 없이 사육하는 돼지들
5. 수은중독으로 아이를 유산한 호주의 레베카
6. 아토피가 심한 아이 형래의 다리 모습





5



6

다가 환경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사람으로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생각까지 했는데,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많은 사람들이 봐야 하기 때문이라며, '단 한 편이라도 시청률 20퍼센트

이상 나오게 하겠다'는 무모한 욕심까지 부렸다. 하긴 결과가 어떻게 되든 뜻이 커야 결과도 좋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도시 환경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가?

「환경의 역습」은 뜬구름 잡는 환경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 어떤 것들을 집어넣고 살고 있는가라는 의문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우리가 추구해온 도시 생활의 편리함과 화려함 뒤에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의 역습이 시작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현대인의 90퍼센트는 크고 작은 도시에 살고 있고, 하루종일 마시는 공기는 먹는 음식의 7배에 이른다. 아침에 일어나 다시 잠들 때까지 하루종일 우리가 마시는 집안 공기와 음식, 자동차, 눈에 보이는 도시 환경 등 우리의 삶에 당장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들을 파고들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지면 관계상 끝으로 한마디만 더 PR을 한다면, 「환경의 역습」은 도시인들의 삶의 환경이 우리 몸을 얼마나 괴롭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내어, 종합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최초의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또한 나 개인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방법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내 연출작인 「생명의 기적」이나 「잘 먹고 잘사는 법」보다 더 스케일이 크고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다. (너무 심했나? ^^) SBS

글 | 박정훈 · 「환경의 역습」 프로듀서

SBS 2004 신년 대기화 「환경의 역습」

● 1부 : 집이 사람을 공격한다

방송 | 1월 3일 밤 10시 55분



처음 소개되는 화학물질 과민증, 새학교 증후군, 새집 증후군 등 실내 유해물질의 심각성과 이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장기간에 걸친 치료과정과 대안을 제시한다.

● 2부 : 우리는 왜 이 도시를 용서하는가?



방송 | 1월 10일 밤 10시 55분

미국식 도시문명의 상징인 자동차가 우리의 건강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위협하고 있으며 건물, 길거리, 간판 등 도시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의 무질서로 인해 인간다운 생존의 기본 조건이 무너진 우리의 도시를 해부한다.

● 3부 : 미래를 위한 행복의 조건

방송 | 1월 11일 밤 10시 55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치과 아말감 안에 있는 수은의 유해성에 대한 논쟁을 비롯해 농약, 살충제 등으로 학습장애

를 호소하는 아이들, 큰 물고기의 수은으로 인해 아이를 두 번 유산한 엄마 등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또한 친환경 축산물 생산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 항생제 없이 키우는 도시를 직접 지어 친환경 생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새 드라마 | 특별기획 「발리에서 생긴 일」

엇갈린 운명이 그려내는 사랑의 낙원

극본 | 김기호, 연출 | 최문석, 제작 | 이김 프로덕션, 방송 | 토 · 일요일 밤 9시 45분

SBS특별기획
발리에서 생긴 일

대박의 꿈을 좇는 이들이 늘어가고, 모든 게 자본의 가치로 환산되는 세상.
‘발리’로 상징되는 낙원에서 사랑과 욕망의 질주가 벌어진다.
꿈과 사랑을 찾아 발리로 날아간 네 남녀의 엇갈린 운명과 사랑의 줄다리기.
「발리에서 생긴 일」은 네 젊은이의 인생을 통해, 우리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해 묻고 있다.





쏟아질 듯한 햇살과 에메랄드빛으로 물든 하늘과 바다, 그곳에 하지원, 소지섭, 조인성, 박예진 네 청춘이 있었다. 이들은 이곳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SBS 특별기획 「발리에서 생긴 일」 촬영에 한창이었다.

「발리에서 생긴 일」은 이들 네 청춘 남녀가 발리에서 만나 인연을 맺으며 겪는 사랑과 야망을 다룬 드라마다. 「나쁜 여자들」 「도시남녀」 등을 연출한 최문석 PD와 「천년지애」 「별은 내 가슴에」 등을 집필한 김기호 작가가 손을 잡고 준비한 작품이다. 사랑에 좌절한 뒤 인도네시아 근무를 자청해 떠난 인옥(소지섭 분)을 찾아 그의 첫사랑 영주(박

예진 분)가 현재의 약혼자 재민(조인성 분)과 발리를 찾으면서 드라마는 시작된다. 이 세 남녀 사이에 현지 가이드 수정(하지원 분)이 합세하면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

수정은 어린 나이에 풍파를 겪고 일찌감치 생업에 뛰어든 당찬 여자다. 그런 그녀를 상처 입은 맹수처럼 주위의 접근을 거부하는 인물인 인옥과 정상과 비정상을 오가는 ‘오버맨’인 재민 2세 재민이 동시에 사랑하게 되면서 갈등이 싹트게 된다. 그로 인해 두 남자로부터 버림받게 된 영주가 복수심에 불타올라 계락을 꾸미기 시작하는데...

연출자인 최문석PD는 “이 드라마는 20대 후반 시청자들을 겨냥한 본격 멜로물로 주인공들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하지원, 소지섭 등 출연진과 촬영진은 1, 2회 및 20회에 방영될 현지 촬영을 위해 지난해 12월 발리에서 동고동락했다. 말도 안 통하는 한국의 스태프와 함께 하는 작업, 수시로 바뀌는 스케줄, 10분만 맨살을 드러내도 벌정계 살이 익는 뜨거운 햇살 등으로 「발리에서 생긴 일」 팀은 모두 고초를 겪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곳, ‘신들의 낙원’ 발리에서 이들 촬영진과 출연진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덴파사르(Denpasar), 탈라 롯(Talah Lot) 해상사원, 쿠타(Kuta) 해변, 울루와투 절벽사원(Pura Lunar Uluwatu) 등 촬영현장에는 이들의 수고가 커켜이 담겨 있었다. 우선 촬영날짜

가 촉박한지라 제작진은 언제나 마음이 초조했다. 하지만 한 장면이라도 더 찍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한국 스태프들과는 달리 현지 스태프들은 언제나 느긋했다. 따뜻한 나라 사람들이기에 갖는 여유랄까, 이들은 항상 늦은 시간에 나타나 일찍 사라졌다. 조연출 이명우 PD는 “처음에는 현지 스태프들이 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 위해 그런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들은 밤샘을 거듭하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런 현지 스태프들의 성향으로 가장 큰 고생을 겪었던 것은 한국 스태프들 중 조명팀이었다. 조명기기를 현지에서 조달하기로 했던 이



들은 장비를 약속 날짜에서 사흘이 지나서야 받을 수 있었다. “이 정도면 빨리 온 것”이라는 현지 관계자의 설명에 제작진은 “받아들여”를 되뇌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일이었다. 조명이 필요 없는 장면만이라도 먼저 찍어야 했다. 이 때문에 고생한 연기자는 조인성이었고, 망중한을 즐긴 사람은 소지섭이었다. 조인성은 조명기가 올 때까지 혼자 나오는 장면을 찍기 위해 구슬땀을 흘린 반면, 소지섭은 촬영 분량이 없어 바다에서 홀로 제트스키를 즐겼다. 덕분에 소지섭은 현지인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검게 타 분장이 필요 없게 됐다는 후문이다.



원숭이 습격사건

이번 촬영으로 서로 처음 만났다는 네 주연 연기자들은 촬영을 계속하며 조금씩 서로를 알아갔다. 이들이 더욱 가까워진 것은 ‘원숭이’라는 ‘공공의 적’ 때문이기도 했다. 올루와트 절벽사에서 촬영할 때였다. 절벽사원은 일명 ‘원숭이 사원’이라고 불릴 만큼 원숭이들이 많이 사는 곳이다. 원숭이들은 이곳에서 무리를 지어 살며 관광객들이 던져주는 먹이를 먹고산다. 원숭이를 ‘신의 종자’로 생각하는 발리인들에게 이런 광경은 낯선 것이 아니다. 문제는 이곳 절벽사원의 원숭이들이 다른 곳의 원숭이들보다 호전적이라는 데 있었다. 모자나 안경, 심지어 귀걸이까지 뺏아가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우선 출연진 중 조인성이 가장 먼저 원숭이들에게 ‘테러’를 당했다. 원래 촬영 장면은 조인성이 원숭이에게 선글라스를 빼앗겨 당황하는 것을 하지원이 보고 안타까워한다는 내용이었다. 촬영진은 악명이 자자한 이곳의 원숭이들이 훌륭히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웬걸! 원숭이들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자 저만치 떨어져 접근조차 하지 않았다. 촬영팀은 당황해서 조인성의 선글라스에 먹이를 감기도 하고, 아예 선글라스를 원숭이 손에 쥐어주기도 했지만 원숭이들은 멀찌감치 달아나 그 광경을 구경만 했다. 할 수 없이 제작진은 그냥 조인성이 이곳을 구경하는 것으로 내용을 대체하고 다른 장면을 찍기로 했다.



하지만 이를 기다렸다는 듯 한 원숭이가 조인성을 급습해 그의 선글라스를 빼앗아갔다. 그 원숭이는 “어, 어” 하며 어리둥절하던 조인성을 바라보며 선글라스를 툭 부러뜨리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다음 타깃은 박예진이었다. 원숭이들은 박예진의 머리에 놓인 선글라스를 노리며 호시탐탐 기회를 엿봤다. 평소 동물을 좋아했다는 박예진은 “원숭이들에게 먹이를 주려고 했지만, 너무 무서워 선글라스를 숨긴

김기호 작가가 말하는 「발리에서 생긴 일」

인도네시아에서도 한류열풍을!



김기호 작가는 그 동안 「천년지애」 「별은 내 가슴에」 「복수혈전」 등으로 필명을 떨쳐왔다. 그는 이번에 새로운 프로젝션을 설립하고, 그 첫 작품으로 「발리에서 생긴 일」을 기획 및 제작했다.

「발리에서 생긴 일」의 제작 동기는?

10여 년 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신발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다. 그때 경험

이 이 드라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사랑

까지도 물질적으로 개량되는 이 사회에 아직도 진실한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일부에서는 해외 로케가 외화 낭비라는 지적도 있는데...

견해의 차이일 것이다. 이번 발리 촬영으로 인도네시아에서도 ‘한류 열풍’이 일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발리에서 생긴 일」의 발리 로케는 현지 언론이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발리에서 생긴 일」이 인도네시아에서도 방영되는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위성방송을 통해 현지 한인들에게는 우선 소개될 것 같다.



채 사람들 뒤에 숨어다녔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하지만 원숭이가 이빨을 드러내며 포효해 가슴이 철렁했던 케이스다. 하지만 그녀의 경우는 그 원숭이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편집에 쓸 수 있었으니 그나마 다행이었다.

이날 「발리에서 생긴 일」의 촬영을 취재하기 위해 동행한 한 현지 여성 언론인도 원숭이에게 귀걸이를 빼앗겨 귀에 상처를 입었다. 촬영진 중에서 모자를 빼앗긴 경우는 수도룩했다. 그러나 하지원 등 연기자들은 그 뒤 모일 때면 이날 ‘원숭이 습격 사건’을 화제로 즐겁게 대화를 나누게 됐으니, 이날 일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인도네시아의 ‘한류열풍’ 예감

「발리에서 생긴 일」의 현지 촬영에 대한 인도네시아 언론의 관심은 비상했다. 2003년 12월 11일 그랜드 미라지 호텔 컨퍼런스 룸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는 발리 포스트, 자카르타 포스트, 발리TV, 메트로TV 등 인도네시아 현지 취재진 20여 명이 참석했다. 현지 취재진은 먼저 김기호 작가를 비롯해 조인성, 소지섭, 박예진 등에게 “발리의 인상은 어땠는지” “촬영 조건은 좋았는지” 등 질문을 던졌다. 소지섭은 “발리에 대한 첫 느낌은 굉장히 뜨겁다는 것”이라고 대답해 발표회장을 웃음바다



로 만들었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등지에서 일고 있는 ‘한류 열풍’이 인도네시아에서도 불 것을 예감한 눈치였다. 이들은 “지난 8월 SBS 드라마 ‘유리구두’가 인도네시아에서 방영됐다”며 ‘발리에서 생긴 일’도 인도네시아에서 방영될지 여부를 관심 있게 질문했다.

영화의 날씨가 반가운 이유

울루와트 내 블루포인트 리조트에서 진행된 소지섭과 하지원의 수영장 키스신 장면 촬영은 제작진에게 있어서 또 다른 고통의 순간이었다. 울루와트는 손을 뻗으면 바다가 닿을 듯한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지만, 따가운 햇살을 피할 그늘이 거의 없어 촬영진은 햇볕으로 인한 화상을 피하기 위해 두건과 복면으로 ‘완전무장’을 했다. 찌는 듯한 날씨와 번덕스러운 현지 사정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지만, 현지 스태프가 참여한 조명팀과는 여전히 손발이 잘 맞지 않았다.

타이밍이 안 맞아 NG가 나길 수차례 거듭한 끝에 마침내 “OK!” 사인이 떨어졌다. 힘들게 촬영을 마쳤기 때문일까. 촬영팀은 이날 마지막 촬영을 끝낸 것처럼 “수고했다”며 일제히 박수를 쳤다. 그리고 장비를 챙겨 다음 촬영지인 쿠타 해변으로 달려갔다. 석양 장면을 촬영하려면 해



가 지기 전에 쿠타 해변에 도착해야 하기 때문이다.

발리에서의 촬영은 그렇게 마무리 돼갔다. ‘발리에서 생긴 일’팀은 이날로 현지에서의 모든 촬영을 끝내고, 다음날 하루 쉼 뒤 12월 15일 귀국했다. 한국은 영화의 쌀쌀한 날씨로 이들을 환영했다. **SBS**

글 | 전형화 · 스포츠투데이 기자, 사진 | 조광희

최문석 프로듀서가 말하는 「발리에서 생긴 일」

‘낙원의 이미지를 선보일 터’

최문석 PD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발리에서 강행군을 한 터라, 안경 걸친 부분을 빼곤 얼굴이 온통 검붉게 타있었다. 최 PD는 “그 동안 「나쁜 여자들」 「도시남녀」 등을 연출했지만, 이번처럼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인 적은 없었다”며 멧 짝어했다.



이 드라마를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발리에서 생긴 일」은 20대 후반, 즉 늦은 청춘들의 엇갈린 사랑을 그린 멜로물이 될 것이다. 발리로 상징되는 낙원의 이미지를 드라마를 통해 구현하고 싶다.

소지섭, 하지원, 조인성, 박예진 등의 캐릭터 설정은 어떻게 했나?

등장하는 인물들 중 완벽한 캐릭터는 없다. 어딘가 부족한 인물들의 조합으로 드라마가 구성될 것이다.

드라마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다는데...

극적 효과를 위해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 결말에 대해 결정한 바는 없다.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은 오랜 시간 방송을 해온 선배들의 깊은 고민에서 출발한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여러 프로그램을 거치면서 느꼈던 방송의 일회성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그 긴 묵마름에 대한 해답 같은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프로그램의 취지는 간단했다. 희귀질환과 장애로 고통 받는 아이들 중, 가난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고 절망에 빠진 아이들과 그 가정을 위해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솔루션 다큐멘터리! 하지만 프로그램이 결정되고, 진행해 가면서 이 간단한 프로그램의 취지가 얼마나 실현되기 어려운가를 절감할 수 있었다.

일단 의료, 심리, 아동복지, 정책분야 등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으로 솔루션위원회를 구성했고, 방송에 소개할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전국 각지를 돌아다녔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해 5월 10일 '수미야, 함께 가자'를 첫 편으로 방송은 시작되었다. 다행스럽게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가 시청자들에게 잘 전해져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큰 상도 받았다.

그러나 제작진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은 풀리지 않는 숙제와도 같다. 방송에 소개된 가족들에게 단 한 번의 경제적 지원만이 아니라 가족들의 자활을 도울 수 있는 다각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러한 솔루션들이 방송 이후에도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단단히 해

희망을 찾아 떠난 여행, 그곳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



토요일 밤 11시 55분에 방송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은 희귀질환과 장애로 인해 음지에서 숨죽이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함께 사는 이웃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런 제작진의 노력은 청와대 초청으로 이어졌고, 그 동안 출연했던 환자 가족들은 영부인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 속에서 특별하고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희망의 기적'을 일궈온 따뜻한 삶의 이야기들이 꽃보다 아름답게 피어난 여행의 날이었다.

야 한다. 하지만 한 번에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가정은 드물다. 그래서 방송이 끝나고 나면 제작진의 레이더망이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게 된다. 만약 어떤 가정에, 어떤 아이에게 다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다시 개입해 솔루션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방송 한 편 한 편이 끝날 때마다 제작진 개개인에겐 챙겨야 할 식구 한 명이 더 늘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기획했던 선배의 말은 내내 가슴에 남아 있다. "프로그램에 담은 아이를 네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든 선택의 순간에 아이의 입장이 되어라." 하지만 그건 말처럼 쉽지 않았다. 만약 나라면, 만약 이 아이가 내 딸이고 내 아들이라면... 그러나 무엇 하나 쉽게 결정할 수 없었고, 하루에도 열두 번씩 생각이 바뀌었다. 회가 거듭될수록 알 수 없는 속앓이를 해야 했고, 그 아이와 가족들과 함께 아파해야 했다. 그렇게 방송이 나가도



홀가분한 게 아니라 책임감까지 더해지니, 그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어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작지만 아름다운 기적

처음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생각했다. 희귀질환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고, 게다가 가난과도 싸워야 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밝고 예쁘게 그릴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을까. 그건 그들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그저 평범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치스런 생각은 아닐까 하고 말이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하면 할수록, 힘들게 병마와 싸우는 아이들과 가족에게 다가가면 갈수록 희망은 결코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걸 배웠다.

우리 제작진은 매주 작지만 아름다운 기적을 본다. 그건 바로 매회 어디선가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기부자들, 그리고 옆에서 힘이 돼주는 이웃들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에서 지금까지 경

제적으로 지원을 해준 업체가 200여 곳,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수가 400여 명이나 된다. 그리고 방송 후에 환아가족들을 위해 시청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인터넷 카페가 26개, 그 회원수는 1만 2천여 명에 이른다고 하니, 이들이 매주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주인공이 아닐까 생각한다.

매주 많은 아픔과 사연을 간직한 아이들을 만나면서 세상엔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병이 왜 그렇게도 많은 건지, 같이 울기도 많이 울고, 웃기도 많이 웃었다.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8개월. 아직도 나에겐 벅찬 프로그램이지만,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여행길에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된 것을 행운이라 생각한다. 내가 만난 아이들은 결코 많은 걸 나눠달라고 한 적이 없다. 그저 약간의 관심과 배려에 아이들이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이들은 웬지 나와는 다르다고 생각하던 나에게, 처음으로 만난 14살 현경이는 이렇게



* 희망을 향한 아름다운 두 여행길

길 하나 - 현경이에게 친구들이 생겼어요!



현경이는 올해 14살로 '뮤코다당증'이란 병을 앓고 있다. '뮤코다당증'이란 몸 속에 뮤코다당 물질이 분해되지 않고 구석 구석 쌓여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키는 국내에 몇 안되는 희귀질환 중 하나다. 현경이 역시 키가 1미터가 채 되지 않고, 만성중이염과 시력장애로 잘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아이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이염으로 귀에서 진물이 흐르고 그 냄새가 너무 지독해, 학교에서도 친구 하나 없는 아이였다. 그런데 현경이의 성격은 발랄, 씩씩 그 자체여서 가끔씩 튀는 행동과 말로 취재진을 웃게 만들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현경이는 보청기를 맞추고 여러 가지 정밀검사를 받았고, MC인 황현정 씨가 학교를 찾아가 친구들을 설득했다. 여태까지 현경이의 정확한 병명도 몰랐던 친구들은 조금씩 현경이의 상황을, 병을 이해해주기 시작했다. 방송이 끝나고 현경이 집엔 매일 친구들이 놀러와 엄마가 간식 만들어내기 바쁠 정도였고, 올 초 미국에서 '뮤코다당증' 치료약이 개발되어 조만간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니, 머지않아 현경이의 훨씬 좋아진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길 둘 - 성민이의 행복한 노래를 들어보세요!

처음 복지관을 통해 성민이를 소개받았을 때, 성민이는 안면기형과 정신장애를 가진 아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난 성민이는 인사성 밝고 노래를 좋아하는 정말 요정 같은 아이였다. 하지만 엄마는 혼자 성민이와 누나를 키우며 살기가 벅하운데, 아들 성민이의 장애 때문에 오랜 시간 방황했다고 한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성민이의 상태를 의논하기 위해 솔루션 위원회를 열던 중, 우리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성민이의 정확한 병명이 밝혀진 것이었다. 성민이의 병명은 '윌리엄스 증후군'. 2만 명 당 한 명꼴로 나타나는 원인불명의 희귀질환으로, 요정 같은 외모가 특징이고 사교성이 뛰어나며 치아부정교합 같은 합병증이 나타난다고 한다. 의사와의 면담에서 병명을 들은 엄마는 또 한 번 절망에 빠졌고, 우리는 성민이네 가족이 병을 정확하게 알고 받아들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다. 그 과정에서 무료로 성민이의 치아치료를 맡겼다는 의사가 나타났고, 엄마의 자활을 위해 한 요리학원에서 무료 교육을 맡아주었다. 그리고 성민의 특수치료를 위해 음악치료사가 치료를 맡겼다고 나섰으며, 자원봉사자들이 자체 커뮤니티를 결성, 엄마가 자활할 때까지 성민이의 치료와 보호를 엄마와 함께 하기로 했다. 지금도 성민이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힘으로 치료와 생활을 하고 있으며 엄마 역시 재기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말했다. "인간은 모두 똑같다고 생각해요.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생각은 절대 안 해요." 현경이의 이런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전해지길 바란다. 그리고 뜻있는 사람들의 많은 참여로 이 프로그램이 오래 이어지길 바라면서도, 한편으로 사회적으로 의료시스템이나 복지정책이 잘 꾸려져 이런 프로그램이 기분 좋게 막을 내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함께 가져본다.

청와대로 이어진 아름다운 여행

2003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뜻밖의 선물이 주어졌다. 12월 16일, 영부인 권양숙 여사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에 출연했던 환아와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준 것이다. 덕분에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아이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는데,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만 알고 지내던 아이들은 만나자마자 금세 친해졌고, 가족들 또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주었다.

딱딱하고 건조할 것이라 예상됐던 영부인의 초청행사는 전혀 예상 밖이었다. 영부인께서 직접 우리 아이들에게 청와대 곳곳을 소개하며 구경시켜 주었고, 우리 프로그램의 개구쟁이들이 던지는 의외의 질문에도 빠짐없이 대답해 주었다. 게다가 영빈관에서의 깜짝 크리스마스 파티와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의 피아노 연주 선물, 가수 자두의 노래, 그리고 영부인께서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까지.

그 동안 힘든 투병 과정 속에 가까운 놀이공원조차 한번 제대로 가보지 못한 환아와 그 가족들에게 청와대로의 여행은 '이주 특별하고 소중한' 경험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아이들이 받은 가장 큰 선물은 무엇보다 따뜻한 관심과 배려였다. **SBS**

글 | 김은희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작가,

사진 | 김연식

프로그램 탐험 | 「TV 장학회」

정보의 홍수 속에서 웃음과 감동을 이끌어낸다

온갖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이다. 이러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TV 장학회」는 유용한 정보들을 취사선택해 시청자들에게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한다. 오락과 교양이 어우러지며, 일반적인 상식을 뒤엎는 정보 퍼레이드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거기에 불우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배움의 길을 열어주는 사회적 공헌까지... 「TV 장학회」에는 유쾌한 웃음과 훈훈한 감동이 있다.



연출 | 김상배 · 남형석, 방송 | 일요일 저녁 7시

“일요일 저녁 7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을 만들라!” 는 특명 아래 「이승연의 세이세이세이」와 「김해수의 플러스 유」의 김상배 프로듀서와 「호기심 천국」, 「사이언스 파크」의 남형석 프로듀서가 「TV 장학회」를 탄생시켰다. 토크쇼와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으로 명성을 떨쳐온 두 프로듀서는 유쾌한 오락성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흥미롭고 재미있는 정보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데 뜻을 모았고, 드디어 지난해 SBS 가을개편에서 「TV 장학회」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상식을 뒤엎는, 흥미로운 정보 퍼레이드!

「TV 장학회」는 제목만 봐선 예전 학창시절 수재들이 나와 실력을 겨루던 장학퀴즈 프로그램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다소 딱딱한 느낌의 제목과 달리, 오락적 요소가 두루 가미되어 있

는 확실한 예능 프로그램이다. 앞서 말했듯 김상배, 남형석 두 프로듀서가 서로의 장기 분야인 토크쇼와 인포테인먼트의 포맷을 적당한 비율로 믹스하여 딱 먹기 좋은, 영양가 넘치는 프로그램이 된 것이다.

「TV 장학회」의 형식은 간단하다. 14명의 연예인 패널들이 출연, 제시되는 일정한 명제들의 진위를 O, X로 가려내는 것. 그런데 바로 여기 주어지는 명제들의 내용에 「TV 장학회」의 진수가 있다. 예를 들어 '모나코



와 인도네시아의 국기는 똑같다'는 명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라. 어찌 서로 다른 주권국가의 국기가 똑같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놀랍게도 정답은 O. '지폐는 솜으로 만든다' 이 명제 역시 과연 그럴까 싶지만 '참'이다. 정말 재미있고 흥미롭지 않은가? 한마디로 '몰라도 살아가는 데 전혀 지장이 없으나, 알고 있으면 인생이 즐거워지는' 그런 지식들이라 하겠다.

제작진은 주로 인터넷을 통해 소재를 찾고 회의를 통해 발전시켜 나간다. 인터넷을 시작으로 거세게 불고 있는 소위 '지식검색'의 분. 그러나 혼란스러울 정도로 지식이 범람(?)하는 바람에 제작진이 검증작업을 하다 보면 검증이 안 되거나 아예 거짓인 경우가 다반사란다. 그래서 살아남은 것을 모아 2차 회의를 거쳐 문제를 채택한다.

이처럼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프로그램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을 기발한 문제를 만들기 위해 9명의 작가와 5명의 프로듀서가 밤잠을 설치며 고생하고 있다. 덕분에 시청자들은 인터넷

상식을 깨는 신선한 명제들을 엄선해 알짜 지식만을 전달하는 「TV 장학회」! 출연자들의 재치있는 입담과 MC 유재석의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돋보이는 프로그램이다.

바다에 떠도는 지식 같지 않은 지식의 홍수 속에서 보다 흥미로운 알짜 지식만을 전달 받게 되는 셈이다. 물론 시청자들도 「TV 장학회」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작진은 지금까지의 상식을 뒤엎거나 미처 생각지 못했던 지식이라면 무엇이든 환영한다고 한다. 제공한 문제가 채택되어 방송이 되면 「TV 장학회」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영광이 주어진다. '여군도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와 '발전소도 전기요금을 낸다'가 바로 시청자들의 참여로 출제된 문제들. 과연 답은 O일까 X일까?

스타들의 재치로 쌓여가는 장학금!

출제되는 문제 자체가 상식을 깨는 신선함으로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출연자들의 재치 있는 입담도 유쾌한 웃음을 선사한다. 그 입담의 중심엔 역시 MC인 유재석이 있다. 김상배 프로듀서는 유재석을 한마디로 '인간성 좋은 MC'로 표현한다. "출연자들을 편안하게 만들면서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가는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죠." 이런 평가 그대로, 혼자서 14명이나 되는 적지 않은 수의 패널들을 아우르는 그의 솜씨가 무척 돋보인다.



사실 제작진의 입장에서 보면 매주 이렇게 패널을 섭외하는 데 어려움도 있지만, '장학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 선뜻 응하는 경우가 많아 기분이 좋다고 한다. "아직도 수많은 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배움의 뜻을 접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들이 나래를 다시금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합니다." 각 패널들이 한 문제를 맞힐 때마다 5만원씩의 장학금이 적립되는데, 2003년 12월까지 모은 금액이 무려 4,300여 만 원에 달한다. "장학금은 협찬사의 후원금을 받아 적립합니다. 처음엔 시·군·구 교육청에



직접 전달을 했는데, 생계형 장학금 지원 대상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어 애를 먹었습니다. 정부 측에서 더욱 신경을 썼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다행히 같은 취지로 장학기금 사업을 펼쳐오던 '아름다운 재단' 관계자가 'TV 장학회'를 보고 연락을 해와 앞으로는 적립금 전액을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 보다 전문적으로 등록금 전달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올 3월 초 신학기에 맞춰 적합한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려 합니다. 특집방송 형태로 보여 드릴게요." 김상배 프로듀서는 아름다운 재단에 직접 기부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개인적으로 기부를 원하는 마음 따뜻한 분들도 꽤 계시더군요." 'TV 장학회'는 이렇게 '웃음과 감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으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리고 매회 방송이 끝나고 나면 또 다시 새로운 기대를 품게 한다. 다음 주에는 어떤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될 것인가? 또 얼마의 장학금이 적립될 것인가? **SBS**

글 | 김진희 · 자유기고가

「TV 장학회」 명제 베스트 3

1. 마늘을 발바닥에 문지르면 입에서 마늘냄새가 난다. ○

제작진이 실제 실험을 통해 참임을 증명한 뒤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다. 발바닥에 마늘을 5분 이상 문지르면, 발바닥에 있는 땀샘을 통해 마늘에 있는 알리신이란 성분이 모세혈관 속 혈액으로 스며들어 온몸을 돌다가 결국 폐로 들어가, 호흡 시 입에서 마늘냄새가 나게 된다고...

2. 임진왜란 당시 흑인 용병이 참전했다. ○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명나라 장수가 자신의 군대에 얼굴 모습이 다른 병사가 있다며 선조에게 보고하는 대목이 있다. '노란 눈동자에 얼굴빛은 검고 사지와 온몸도 모두 검다...' 당시 포르투갈의 흑인 노예가 중국에 팔려가게 되었고,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원군을 파병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용병으로 조선 땅을 밟게 되었다고.

3. 알라딘은 인도 소년이다. ✕

『아라비안나이트』는 1703년 프랑스 A. 갈랑의 불역판(佛譯版)이 나온 후 전 세계에 퍼졌으며, 현재 리처드 버턴의 영문판이 가장 널리 읽히고 있는데, 이 두 작품 모두에 알라딘은 중국의 가난한 소년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알라딘이 『아라비안나이트』의 주인공이라는 것 때문에 단순히 아라비아 사람으로, 혹은 인도식 터번을 쓰고 나오는 만화 때문에 인도 소년일 거라고 추측하면 오산.

하늘을 꿈꾸며 따뜻한 것을 그리워한다

하지원

배우라는 직업이 지닌 매력을 즐길 줄 아는 배우 하지원. 그녀는 지금 ‘발리’의 태양빛이 되어 시린 겨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하늘바라기를 즐긴다는 하지원의 꿈과 그리움의 표정은 어떤 빛일까. ‘발리’의 태양으로 우리 곁에 머물고 있는 그녀에게 가만히 다가가 본다.

배우 는 이사를 자주 해야 하는 직업이라고 했다. 잦은 이사가 힘들지 않다고 했다. 영화를 마감하고 드라마를 시작해야 하는 기분이 그냥 이사를 한 것 같다고 그녀는 말했다.

“다모를 찍고 한동안 힘들었어요. 행복하지 않은 사랑은 언제나 가슴이 아파요. 슬픈 사랑이 가득한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어도 가슴이 아픈데, 주인공이 저였으니까요.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많이 털어 버렸어요. 배우는 옮겨가야 하잖아요.”

형광빛 조명 아래 고양이처럼 앉아 있던 그녀 앞으로 헤드라이트 불빛이 지나간다. 잠시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다. 그리고 무언가를 기다리기라도 하듯 창문 밖으로 눈길을 준다. 마치 그녀는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 같다. 어딘가로 가야 하는 것, 그녀의 눈빛은 그걸 알고 있다.

찬바람과 함께 새로운 기운들이 몰려오고 늘 꽃꽂하던 그녀가 한발을 내딛은 곳은 ‘발리’다. 가슴 시린 사랑에서, 또 다른 세계로. 그렇게 그녀는 새로운 곳에 발을 디디고 있었다. 이제 당당히 서서 새로운 곳으로 눈길을 주는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보다 더 아득한 아름다움이 도착해 있었다.

배우의 직업적 매력을 즐긴다

살짝 종잇장قاد도 같은 날카로움이 스치고 지났을 법한 하지원의 마음에는, 그 상처는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친 사람처럼 강한 분위기로 변해 있다. 배역에 충실하고, 다양한 재능을 보여주는 여느 배우들하고는 다른 하지원만의 독특한 분위기는 눈빛이 뭔가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인상이 담백해서가 아니라 처연하기 때문에 설득력을 가진다.

어느 날 지독한 사랑이 떠나간 순간에도 그렇다. 땅을 걷다가도 나무를 쳐다보다가도, 혹은 혼자 방안에 있으면서도 사랑한다고 독백하고 싶어진다. 처연한 말, 사랑해. 어느 대상에게나 그렇게 말하고, 웃다가 언젠가 지나간 사랑이라고 규정짓게 된다. 그렇다. 하지원의 얼굴은 어느 날 지나간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픈 얼굴이다. 그리고 문득 어떤 대상에게 ‘사랑해’라고 말할 듯한 얼굴이다.

“전 다시 태어나도 배우를 하고 싶어요. 욕실에서 더운 물로 샤워를 하면 욕실 거울에는 자기의 희미한 형체만 남잖아요. 그리고 손을 가져가서 스윽 하고 문지르면 얼굴이 나타나는데, 그건 매번 다른 얼굴로 나타나죠. 배우라는 직업은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매력적인 것 같아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바뀌는 것에 익숙하고, 또 매력을 찾는 그녀는 천상 배우이다. 어렸을 때의 하지원은 배우인 현재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겠지만, 그녀에겐 그런 변화를 즐기는 어떠한 힘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다.

‘발리’의 태양빛으로 우리 곁에 머물다

하지원은 「발리에서 생긴 일」의 ‘수정’이란 역에,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를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여행가이드 역에 매력을 느낀다고 한다. 삶을 버텨 나가는 힘밖에는 없는 그녀에게 다가온 두 남자. 재벌 2세인 재민(조인성 분)과 상처를 가진 인욱(소지섭 분)과의 구도 속에서 당차게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이 유쾌하게 그려질 것이라는 말도 잊지 않는다.

“저는 상처 입은 역할을 많이 해서인지 잘 지켜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사랑을 꿈꿔요. 저는 다른 건 안 볼 거예요. 든든한 사람이면



돼요. 아직은 「발리에서 생긴 일」 속의 인육처럼 따뜻한 사랑을 택하느냐, 재민처럼 속 깊은 사랑을 택할지는 잘 모르죠. 둘 다 적당히 섞인 사랑의 형태면 참 좋을 텐데….”

그녀는 이제 막 도착한 ‘발리’에서 또 다른 변화를 시작한다. 「다모」의 ‘채옥’이 아니라 이제는 ‘수정’으로 보이고 싶은 그녀의 욕심 가득한 얼굴이 미워보이지도 않았다.

어려서부터 감정이 풍부했다는 그녀. 그녀에게도 화를 낼 일이 찾아올 것인가. 그녀는 최근 들어 읽은 톰 나이트의 책 속에서 ‘화’에 대한 감정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화가 찾아오면 일단 자각상태를 유지해야 한대요. 그것은 마치 감자를 삶는 것과도 같아서 감자를 익히기 위해 15분이나 20분쯤 되는 시간을 기다려야 하잖아요. 화도 삶은 감자와 비슷해서 시간을 들여서 충분히 익혀야 한다는 말. 전 그 말을 다른 감정에도 자주 빗대보곤 해요. 누군가를 만나서 가슴 뛰는 순간도, 또 뭔가를 하겠다고 엄청난 의욕을 보이는 일도 화를 감자 삶는 일에 비유하는 일처럼 그렇게 해보는 거죠. 그러면 제가 순해지니까요.”

그녀가 살아가는 방식은 그렇게 가지런해서 참 좋다. 정리정돈을 잘해서 아마도 사랑의 상처가 생겨도 그 상처마저도 차곡차곡 잘 배열해 둘 것 같은 여자. 삶에 지치고 하루에 눌러 살다, 새벽 어느 편의점 불빛에서 그녀의 외로움과 마주치고, 그녀의 사랑의 안부를 묻게 될 시간들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뛰다. 그녀는 발리에 있겠지만 그렇게 또한 우리 곁에 있을 것이다.

하늘바라기, 따뜻한 그리움

일부러 하늘 올려다보는 일에 익숙한 사람은 드물다. 언제나 보는 것이고 감지하는 것이지만 결코 의식하지는 못하는 것이 하늘이며 공기이며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늘 보는 것을 좋아한다는 하지원의 말이 오래 마음에 남는다. 바다와 마찬가지로 끝을 알 수 없는 하늘을 올려다보는 일은 쓸쓸해 할 줄 아는 이들의 버릇과도 같은 것이다. 그런 그녀가 하늘을 꿈꾸며 따뜻한 것을 그리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SBS**

글 | 이병률 · 시인, 사진 | 조광희

특급 DJ 특급쇼!

너스레로 왁자지껄, 유쾌한 퇴근길



김홍국이 말하는 >> 박미선

저한테는 박미선 씨만한 파트너가 없어요. 그녀 옆에 있으면 난 할 게 없어요. 알아서 잘 하니까요. 저는 가끔 주임새만 넣으면 돼요. 뚝 부러지게 정리를 잘 해주니까 믿고 맡겨요.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 목소리를 듣고 다시 희망과 용기를 가져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 많이 들어주세요!

박미선이 말하는 >> 김홍국

요즘처럼 나 잘났다고 내세우는 세상에서 나 못났다고 하며 방송하시는 분 드물잖아요? 청취자분들도 약간 모자란 듯한 부분에서 동질감과 연민 같은 것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웃음) 인간적이고 솔직하고 따뜻한 부분을 많이 갖춘 DJ예요. 김홍국 씨가 벌려놓은 것을 수습하기에도 바쁘지만, 저도 이젠 많이 망가져려구요. 앞으로 여러분들 많이 즐겁게 헤드릴 겁니다

언젠가부터 퇴근길이 좀더 가벼워졌다고, 유쾌하기까지 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원인은 만인의 친구인 가수 김홍국과 목소리 나는 개그우먼 박미선이 진행하는 「대한민국 특급쇼」가 있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은 서민에 의한, 서민을 위한 방송을 지향한다.

이 프로그램의 최대의 미덕은 각박하고 힘든 시대에 서민들의 고된 일상을 함께 느끼고 서로를 위안하는 것이다.

연출 | 이재춘, 방송 | 매일 저녁 6시 5분

다소 노골적(?)이고 당찬 슬로건으로 우리를 찾아온 김홍국, 박미선.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두 사람이 새롭게 뭉친 「김홍국·박미선의 대한민국 특급쇼」가 지친 퇴근길에 활력을,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에 신선한 자극을 선사하며 청취자들의 해묵은 스트레스를 한방에 날려주고 있다.

‘지친 퇴근길의 활력증강! 지루한 일상의 자양강장제!’

자칭 타칭 대한민국 특급 DJ라는 두 사람이 풀어놓는 유쾌한 이야기들에 귀기울이다보면 참으로 신기한 생각이 든다. 뭔가 하나쯤 빠진 듯한 허술함(?)이 정겹게 느껴지는 김홍국과 정리정돈에 능한 깔끔한 박미선,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사람이 이토록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구나! 감정적이고 직선적인 김홍국이 일순간 방송의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면, 어느 틈엔가 박미선은 능숙하게 분위기를 수습해놓는다. “오랜 시간 함께 방송해온 두 사람이 서로의 장단점을 파악해 충분히 활용하는 데에서 기막힌 콤비 플레이가 나오는 것”이라는 이재춘 프로듀서의 말처럼, 두 사람이 만들어내는 절묘한 하모니는 장소팔과 고춘자에 버금가는 입심으로 웃음보를 자극한다.

완벽한 콤비 플레이에서 나온 편안함으로 청취자들을 끌어당기는 그들의 진정된 장기는 삼팔육, 사오정 세대를 아우르며 세상사를 구수하게 풀어내는 넉넉함이다. 중·장년층을 흡수할 만한 마땅한 프로그램이 부재한 가운데, 중·장년층의 지치고 고된 속내를 보듬어주는 두 DJ들 덕분에 「대한민국 특급쇼」는 중·장년층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

사는 일이 그렇듯, 좋은 일이 있으면 곁은 일도 있는 법. 「대한민국 특급쇼」에는 입심 좋은 두 DJ가 시종일관 뽐어내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넘치지만, 어렵고 힘든 시기를 열심히 살아내는 우리 이웃들의 진솔한 이야기도 빠지지 않는다. 실컷 웃다가도 평범한 소시민의 애환이 담긴 에피소드를 듣고 있으면, 힘든 시기를 함께 하는 무

수한 동지들이 있음에 절로 마음이 든든해진다.

삶의 활력과 베풀어주는 방송

‘서민들을 위한 따뜻한 방송.’ 김홍국, 박미선 두 특급 DJ를 비롯한 제작진 모두의 바람이 담긴 말이다. 어려운 시기에 서로 위로하며 함께 잘 살아보자는 이런 바람은 프로그램 곳곳에서 묻어난다.

먼저 ‘쪽지가 도착했습니다’ 코너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세 명의 작가가 현장에 나가 직접 평범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스케치한다. 여자 버스운전기사, 군대 보낸 아들로 인해 상심해 있는 아내를 위로하는 다정다감한 남편 등 동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훈훈한 정이 느껴진다.

직장인들과 장사하는 분들, 가정주부 등 각계각층의 뜨거운 호응을 불러일으킨 코너 ‘스트레스 팡팡팡!’은 말 그대로 하루의 스트레스를 모조리 날려버릴 수 있는 코너이다. 오늘 하루 열 받았던 일, 황당했던 일, 풀지 않으면 화병으로 자리 잡을 사소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DJ들이 청취자들보다 더 흥분한다.

또한 ‘인생역전, 특급대박’에서는 소자본으로 창업 가능한 알짜 창업정보를, ‘성공학 시대’에선 시류에 뒤지지 않고 발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처세학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어려운 시기인 만큼 청취자들의 격려가 많은 코너들이다.

이렇듯 「대한민국 특급쇼」는 청취자들과 진실로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방송이 되길 꿈꾼다. 이 프로그램이 오늘도 두 어깨 가득 힘겨운 일상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보통사람들의 삶에 따뜻한 위로와 함께 생생한 활력을 전할 수 있는 재치 있고 믿음직한 베풀어주길 바란다. **SBS**

글 | 위지영 · 자유기고가, 사진 | 김연식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분주하게 뛰어 다니는 스태프들과 연기자들. 아무튼 드라마를 만든다는 건 어떤 공동체적인 작업인 것만은 확실하다. 김태희, 그녀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연기가 어렵다고 수줍게 웃는 미소 사이에 그녀가 품은 욕망과 가능성이 묻어 있다. 이제 그녀가 품은 욕망이 무엇인지 밝혀 볼 때가 왔다고 그녀는 말한다. “완전히 깨 부수구, 캐릭터에 나를 던질 수 있는, 벽을 허무는 뭐 그런 거, 그런 거 어디 없나요?”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없다.

지킬박사와 하이드 씨가 되어...

스물 셋. 어리고 청순한 얼굴의 배우. 하지만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어딘가 미숙할 것이라는 편견이 끼어 들 틈은 없다. 그녀는 “연기란 벽을 허무는 것”이라고 말한다. “어떻게 하면 연기를 잘 할까. 연기란 뭘까. 그리고 마지막은 항상 어렵구나, 생각해요.” 그녀는 배우가 갖는 고민을 항상 품고 있었다. 그녀에게 그러한 고민은 욕망이고, 욕심의 발현이다. “얼마나 그 배역을 깨끗하게 소화해 내는가가 제가 지금 처한 과제이자 욕심이죠.” 화려한 등극이나 스타의식은 그녀의 욕심을 채우고 난 후의 문제였다.

그녀는 지금 두 가지의 상반된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다. 털털한 패션 디자이너인 「홍부네 바람났네」의 ‘수진’과 「천국의 계단」에서의 표독스러운 악녀 ‘유리’, 이 두 인물 사이에서 살고 있다. 상반된 성격의 두 배역을 소화해 낸다는 게 여간 쉽지 않은 모양이었다. “요즘은 꼭 지킬박사와 하이드 씨 같아요. 그래서 행복하지만...”

배우라서, 너무 행복한 나!

꼭 한 번 악녀가 되어보고 싶었다는 배우 김태희. 그녀의 소박하지만 당찬 꿈이 야물게 익어가고 있다. 그녀는 지금, 순수의 여인과 악녀 이미지를 표출하는 캐릭터 사이를 자유로이 줄타기하며 연기변신의 절정을 달리고 있는 중이다.

김태희는 2004년에도 ‘섬세함과 순수함’이라는 연기의 또 다른 가능성을 찾아 자신을 담금질할 예정이라고 한다.

섬세함과 순수함, 또 다른 가능성

김태희는 서울대 의류학과 휴학 중이다. 하지만 그녀는 명문대학교 출신이라는 것이 배우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저에게 학교는 어떤 삶의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더 큰 의미를 두는 것 같아서 그게 아쉬워요. 감성적인 부분보다 저의 이지적인 부분을 먼저 보는 선입견. 그것은 연기를 하는 데 오히려 저에게 마이너스로 다가오죠.”

요즘 오로지 연기만 공부한다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악녀 공부. 정말 꼭 한번은 악녀가 되어보고 싶었다고. 그런데 그 꿈이 너무 빨리 이루어져 조금은 정신이 없다고 했다. “유리처럼, 실제로 저는 악녀는 아니에요. 그러나 유리의 성격이 저에게 없는 것은 아니에요. 가령 질투라던가, 샘내는 모습, 그런 부분이 닮았나?” 자신은 충분히 유리를 동정하고 이해한다고 얘기했다. 자신이 맡은 인물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배역을 소화해낼 수가 없다고 했다.

“배우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섬세함과 순수함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게 새해에 제가 찾을 목표거든요.” 2004년, 김태희는 진짜 연기를 하는 배우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의 욕심은 그녀의 가능성이다. 그녀는 정말 욕심이 많은 배우였고, 당찬 신세대 배우였다.

간단한 인터뷰를 마치고 그녀가 다시 녹화장으로 들어갔다. 조명이 들어오고 리허설은 시작되었다. 김태희는 다시 악녀로 돌아가고, 잠깐 동안의 김태희 자신은 잊은 듯 보였다. **SBS**

글 | 백가흠 · 소설가, 사진 | 김연식

김

태

희



일상에서, 사람들 속에서 개그를 캐는 인간학자!

「웃음을 찾는 사람들」에서 능글맞은 캐릭터를 연기해 인기 정상을 달리고 있는 개그맨 김늘메! '김늘메표 개그'의 진실성은 바로 인간탐구에서 나온다. 그는 특이해 보이는 사람, 이상한 코드를 가진 사람들 속에서 개그 아이디어를 얻는다. 인간 탐구자로서의 개그맨 김늘메, 이번에는 동성연애를 소재로 색다른 캐릭터를 준비하고 있다는 그의 새로운 개그가 기대된다.



김늘메



무엇 이든 간에, 드러나 보이는 것만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건 잘못된 일이다. 나중에 드러나지 않았던 그 무언가가 항상 뒤통수를 때리기 때문이다. 드러난 하나의 일만 가지고 전체를 판단내리는 일반화 오류, 개그맨도 마찬가지이다. 개그맨 하면, 보통 웃긴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기 마련이니까. 화면에서, 매체에서 보는 것만 믿고 판단하는 순간, 전혀 다른 모습에 당황하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 그날이 그랬다. SBS 등촌동 공개홀에서 김늘메를 만나는 순간, 문득 일반화의 오류가 생각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는 사색적이고, 철학적이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그는 사람을 연구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필자는 서둘러 시시껄렁한 질문 뭉치를 바꿔나간다. 그가 속으로 필자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 “이봐. 이러는 거 아냐~”

사람을 연구, 아니 탐구한다?

“저는 항상 특이한 사람, 이상한 코드를 가진 사람들을 잘 관찰해요. 그것이 저에게는 은행잔고와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끊임없이 인간탐구를 하는데, 사람들의 습관, 특색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말을 마치더니 묘한 눈초리로 필자를 바라본다. 필자는 서둘러 시선을 피한다. “늘 유쾌하지는 않죠. 유쾌함이 나로 인해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 같구요. 재미있는 것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서 오고, 다른 사람들을 읽음으로써 아이디어가 생각나요.” 그는 사람을 열심히 연구해야 다른 사람을 웃길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개그맨이 아니라 사람 연구가인 셈이다.

나는 더 많이 아프고, 견뎌야 한다

당신의 개그는 무엇인가?라고 묻자, 그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생각한다. 아주 어려운 모양이다. “개그라는 것을 처음 접했을 때 참 행복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삶에서 동떨어진 해방감이나 자유를 느껴거든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저의 그런 모습을 잠깐이라도 보면서 그 순간을

간을 저에게 빠져들어 힘든 일, 슬픈 일. 뭐 이런 것들을 잊어 버렸으면 좋겠어요. 욕심이죠. 그건 제가 개그를 하는 욕심. 근데 내 개그는 뭐자...?”

그 욕심이 참 좋아 보인다고 말하자, 그는 이제 다른 캐릭터를 선보일 거라고 귀뜸을 해준다. 동성연애에 대한 개그인데, 재미있으니 기대하라 고... 김늘메의 개그는 사람이다. 그도 알면서 더 큰 욕심이 들길까봐 대답을 안 한 건지도 모를 일이다. “저는 더 많이 아파야 한다고 생각해요. 더 많이 아프고 꺾여야 저에게 더 발전이 온다고 생각해요. 경험을 많이 하고, 경험에서 오는 실패를 맛보고 해야 제가 더 발전을 한다고 생각해요. 너무 추상적인가요? 하하하.”

개그맨 김늘메의 2004년은?

여자친구 사귀기와 CF출연. 2004년에는 이 두 가지를 꼭 이루고 싶다고 필자의 손을 붙잡는다. 난 능력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면 광고 말고, 여자라도...” 그는 아쉬운 눈초리다. 잠깐의 만남에 너무 친해져 버린 것은 아닌지, 잠시 떨어져 그를 바라본다. 김늘메. 그에게서 사람 냄새가 풍겨온다. 그는 정말 사람을 아는 사람 같다. 이제 그의 활약을 아니, 선전을 기대해도 좋겠다. 아직 그의 은행잔고에 많은 사람들의 독특함이 줄서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말이다. **SBS**

글 | 백가흠 · 소설가, 사진 | 김연식

SBS 미디어넷, 도약과 비상의 2004!

채널 | SBS 스포츠채널 · SBS 골프채널 · SBS 드라마플러스(케이블TV · 위성방송)

갑신년, SBS 미디어넷(SBS 스포츠채널, SBS 골프채널, SBS 드라마플러스)은 새해를 맞아 '미래지향 전문방송'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새로운 콘텐츠와 다양한 볼거리로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 '스포츠는 언제나' SBS 스포츠채널



스포츠 중계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한 SBS 스포츠채널은 2004년에도 국내 3대 프로 스포츠(프로야구, 프로 축구, 프로농구), 아마추어 경기 등 330경기를 생중계로 방송한다. 또한 두터운 마니아층을 확보한 WWE 프로 레슬링 'RAW', 'Velocity', 'Monthly Special' 및 이종 격투기 'AFC', 'CFC', 'IFC'의 다양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다. WWE 프로레슬링의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알려주는 정보 프로그램 Confidential과 이종 격투기 FFE(Fire Fight Event)를 2004년에 새롭게 선보이며, ATP테니스 '호주 오픈', 'NFL', '피트니스 존', '건강 요가', '스포츠 중계식', '다이어트 맨스', '프로볼링', 'SBS 당구' 등의 다양한 스포츠를 만나볼 수 있다.

● '골프는 언제나' SBS 골프채널



국내 골프방송의 대표주자인 SBS 골프채널은 2004년 1월 1일부터 '종일방송'으로 새롭게 전환하고, 세계 3대 투어(U.S PGA, LPGA, EPGA)의 전 경기를 매주 생중계로 방송한다. 국내에서 열리는 KPGA, KLPGA 빅경기도 중계할 예정이다.

또한 '다년간의 노하우'로 제작된 고품격 골프레슨(PGA골프 테마레슨)과 신속하게 골프 정보를 전해줄 '골프투데이', 최상의 이벤트 프로그램 'LG자이 베스트 멤버스 골프' 등이 업그레이드되어 시청자 곁을 찾아가고, 전현숙 프로골퍼의 'LPGA 골프 스페셜레슨', '임진한의 실전레슨', '부부사랑 골프대회'가 새롭게 신설되어 선보인다.

● '함께 하면 즐거운' SBS 드라마플러스

드라마 부문에서 2004년은 최고의 변화를 꾀하는 한 해가 될 것 같다. 먼저 일본문화 개방과 함께 SBS 드라마플러스가 1월 6일(화)부터 '골든 볼'(금성무 · 구로키 히토미 주연)을 방송한다. (매주 화 · 수요일 밤 12시 20분, 매주 토요일 밤 10시)



NTV의 대표작인 '골든 볼'을 비롯해 조폭 출신 교사가 등장하는 '고쿠센', 청각장애인의 애틋한 사랑이야기를 담은 '별의 금화'도 방영된다. 또한 일본 트렌디드라마의 선두주자인 TBS의 드라마 시리즈 '이상적 결혼(Wedding Story)'을 비롯해, '사랑하고파, 사랑하고파, 사랑하고파', '사랑을 몇 년 쉬었습니까' 등이 SBS 드라마플러스를 통해 국내에 첫선을 보이게 된다. **SBS**

SBS 미디어넷 1월 하이라이트

SBS 미디어넷은 SBS 드라마플러스(<http://drama.sbs.co.kr>), SBS 스포츠채널(<http://sportsch.sbs.co.kr>), SBS 골프채널(<http://golf.sbs.co.kr>)의 통합 명칭입니다.
편성표 및 하이라이트는 SBS PR 사이트인 <http://sbspr.sbs.c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SBS 스포츠채널

케이블 TV, 위성방송 Ch501, <http://sportsch.sbs.co.kr>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Free Fight Event (이종격투기)	매주 목요일 저녁 9시	AFC, CFC, IFC에 이은 또 한 번의 빅 경기! FFE(Free Fight Event)는 경기당 8,000명에 육박하는 관중을 몰고 다니는, 유럽에서 격투기 역사가 가장 깊은 경기다. 로니 리바노를 비롯해 한스 니즈만, 윌리 피터스, 헤르만 렌팅, 니루세, 아마모토, 고사카, 크리스 돌만, 코프리오프 등 내로라하는 세계 최강의 격투기 선수들이 모여 경기를 펼친다.
WWE 프로레슬링 Monthly Special '아마겔론'	1월 11일 일요일 저녁 7시 10분	한달에 한번 열리는 빅 이벤트! '아마겔론'은 선과 악의 최대의 결투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번 '아마겔론'에서는 악역을 자처하고 나선 에블루센 멤버들이 모든 챔피언 타이틀을 석권하며, 새로운 흥미와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다.
SBS 당구(3쿠션) 왕중왕전	매주 월요일 밤 12시	SBS 당구(3쿠션) 대회가 드디어 왕중왕전을 펼친다. SBS 당구의 1~4차전을 총결산하는 왕중왕전은 1월부터 열리는 8강전에서 결승까지, 매주 월요일 밤 12시에 만날 수 있다. 특히 김무순, 박춘우 선수는 50대의 노익장을 과시하며 가볍게 8강에 진입했다. 한편, 예상과 달리 20대의 신인급 선수들이 8강에 대거 포진, 이들의 활약이 기대된다.

SBS 골프채널

케이블 TV, 위성방송 Ch502, <http://golf.sbs.co.kr>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2003 ANZ Tour Mastercard Masters (전 라운드 생중계)	1월 8~11일 낮 12시	호주 퀸스랜드, 헌팅데일 G.C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지난해 챔피언 피터 로나드를 비롯해, 내로라하는 유럽 최강의 선수들을 접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것이다. 그 동안 국내에서 자주 접할 수 없었던 ANZ Tour의 경기를 자주 접할 수 있고, 알려지지 않은 유명 선수들의 명플레이도 감상할 수 있다.
Inside PGA-1회	1월 9일 금요일 저녁 7시	2003년 대회를 정리해 보고, 2004년 새롭게 시작될 US PGA의 한해 전망과 '메르세데스 챔피언십' 개막전 관련정보 및 뉴스를 알려주는 PGA 정보 프로그램이다. 올 한해 최고 실력을 선보일 선수, 최고의 상금을 차지할 선수 등 다각도로 US PGA의 모든 것을 예상해 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특집 TGC 골퍼아카데미 데이비드 레드베터 편	매주 월~일요일 오전 11시 1월 5일 첫방송	미국 최고의 골프레슨 커리큘럼인 TGC 골퍼아카데미! SBS 골프채널 최고의 레슨 프로그램으로서,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지도 방식으로 시청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골프채널은 1월부터 최고의 골프 지도자 데이비드 레드베터의 골프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레슨들만을 새롭게 구성, 골퍼들 모두에게 정통골프를 배울 수 있는 알찬 시간을 제공한다.

SBS 드라마플러스

케이블 TV, 위성방송 Ch321, <http://drama.sbs.co.kr>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야인시대」 (겨울방학 특집)	매주 화~금요일 오전 9시 40분 1월 6일 첫방송	방영 당시 밤 10시대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던 「야인시대」를 다시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1년이 넘는 방송기간 동안 부동의 시청률 1위 자리를 고수하며, 다양한 연령대의 남성들을 TV 앞으로 끌어들이는 드라마. 김두한의 유년 및 청년 시절, 공산당에 저항하고 불의에 도전했던 중·장년기를 담아낸 「야인시대」의 감동이 다시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청춘의 덫」 (겨울방학 특집)	매주 월~금요일 낮 12시 40분 1월 7일 첫방송	언어의 연금술사로 불리는 작가 김수현의 명작. 새롭게 풀어가 는 사랑의 방정식! 국민배우로 자리매김한 심은하를 비롯해 전광렬, 이종원, 유호정 등의 명연기를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술의 나라」 (겨울방학 특집)	매주 월~금요일 새벽 6시 1월 8일 첫방송	전통주를 살리려는 젊은이들의 열정과 사랑을 그린 드라마. 신세대 최고의 스타로 떠오른 '살인미소'의 김재원과 아역배우 출신으로 탄탄한 연기력과 미모를 겸비한 김민정이 열연했다. 또한 톡톡 튀는 연기자 최강희와 떠오르는 신예 이동욱 등이 출연해 사랑받았다.
「해피투게더」 (겨울방학 특집)	매주 화~금요일 오후 5시 20분 1월 15일 첫방송	재혼한 부모가 사고로 목숨을 잃은 후 흩어졌던 다섯 남매가 성인이 된 후 다시 만나서 펼치는 갈등과 형제애를 다룬 작품.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이병현을 비롯해, 지금은 배우로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전지현, 김하늘, 송승헌 그리고 한고은, 조민수 등이 출연했다.



애니 / 만화 사이트 겨울 이벤트

www.sbs.co.kr 내의 애니 / 만화 사이트에서는 새해를 맞아 경품 이벤트를 준비했다. 1월 중순까지 애니넷과 코믹시티가 엄선한 인기 애니메이션과 만화 콘텐츠를 관람한 회원들 가운데서, 추첨을 통해 고급 향수와 인기 인터넷 작가 포로리가 만든 카툰북을 선물로 증정한다. 당첨자는 애니넷과 코믹시티의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발표하고 개별 공지할 예정이다.

50% DOWN 된 가격의 패키지 애니메이션!

12월 22일부터 1월 25일까지~ 올 겨울 두배로 재밌어 진다...!!!

할만 값에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애니메이션을 즐긴다! 다양한 가격의 다양한 즐거움을 담은 패키지 상품을 지금 만나보세요~

모두를 위한 패키지 이벤트 상품

동원캐릭터 패키지	마블캐릭터 패키지	슈퍼히어로 패키지	재미있는 동물 + 동물 패키지
고화질	고화질	고화질	고화질
₩12,000 - ₩15,000	₩12,000 - ₩15,000	₩12,000 - ₩15,000	₩12,000 - ₩15,000
구매하기	구매하기	구매하기	구매하기

패키지 상품을 한번 구매하시면 7일 동안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애니메이션 사이트에서는 50퍼센트 할인된 가격에 패키지 애니메이션 세트를 관람할 수 있는 이벤트 행사를 진행한다. 연령 구분 없이 모두를 위한 패키지 이벤트 상품에는 '후르츠 바스켓' '아즈망가 대왕' '슬레이어즈 트라이' '듀얼+자이언트 로보' 등 네 가지 패키지를 선보이고, 성인을 위한 패키지 이벤트 상품은 성인작품 10작품 27편을 볼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이 서비스된다. 패키지 상품은 한 번 구매하면 7일 동안 볼 수 있다.

영화 「내사랑 싸가지」 시사회 이벤트

www.sbs.co.kr 내 영화 사이트에서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좌충우돌 러브스토리를 다룬 인터넷 소설을 영화화한 김재원, 하지원 주연의 「내사랑 싸가지」 시사회 이벤트가 열린다. 예고편을 본 후 퀴즈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50명을 시사회에 초대한다. 13일까지 응모할 수 있으며, 시사회는 14일(수) 저녁 7시 드림씨네마에서 열린다.



www.sbs.co.kr 소식

SBS 라디오 DJ들의 신년 영상 카드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SBS 라디오 DJ들이 각자의 성을 살려 애청자들에게 감사의 신년 메시지를 담은 영상카드를 보낸다.

SBS(www.sbs.co.kr)는 새해를 맞아 SBS 파워 FM DJ 이숙영, 최화정, 이현우, 하하, 몽, 한희 등과 러브 FM을 진행하는 DJ

손숙, 김학도, 컬투, 김흥국, 박미선 등의 신년 축하 메시지를 담은 동영상(www.sbs.co.kr/event/christmas_card/christmas_index.html)을 통해 1월 말까지 서비스한다. DJ들은 영상카드에 지난 한 해 동안 프로그램을 아껴준 애청자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함께 새해에도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한편 네티즌들은 DJ들의 영상카드를 확인한 뒤,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지인들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의 DJ 이미지를 담아 메일로 신년축하카드를 전송할 수도 있다.

라디오 사연신청 - SMS로 날려주세요~

라디오 청취자들의 사연신청 방법이 다양해진다. SBS 라디오는 기존의 청취자들이 주로 이용하던 팩스, 우편, 전화,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한 사연신청에 국한하지 않고, 1월부터 휴대폰의 SMS(Short Message Service : 단문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한 사연신청 방법을 도입해 청취자들의 참여범위를 확대한다. 휴대폰을 이용해 사연을 적은 짧막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 된다.

SMS를 활용한 사연신청은 말 그대로 짧막한 사연을 휴대폰의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해 지정된 번호(SBS 파워 FM은 2000-222번, 러브 FM은 2000-220번)로 보내면, 이 메시지는 해당 프로그램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오고, 라디오 DJ는 방송을 진행하면서 게시판의 SMS 사연을 소개

SBS 골프닷컴, 골프게임 '샷 온라인' 독점 서비스



골프전문 인터넷 사이트 SBS 골프닷컴(www.sbsgolf.com)은 게임개발 전문 업체인 온네트와 손잡고 풀 3D 스포츠 게임(골프)에 RPG(Role Playing Game) 요소를 가미한 '샷 온라인' 게임을 국내에서 독점 서비스한다.

'샷 온라인'은 인터넷을 통해 즐길 수 있는 3D 온라인 골프 게임으로, 마치 실제 필드에서 골프를 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현실감 넘치는 사실성에 중점을 두고 개발되었다. 플레이스테이션이나 X박스와 같이 비디오 게임기에서나 느낄 수 있는 정교한 아바타 캐릭터에 현실 프로골퍼의 모션을 덧입혀 구성한 스윙 동작을 통해 실제 프로선수의 경기 중계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또 호쾌한 드라

이브샷을 느낄 수 있는 사운드 효과나 병커샷, 디봇자국 등의 정밀한 그래픽 처리, 그리고 비나 눈처럼 계절 또는 날씨와 관련된 속성을 게임에 적용시켜 현실성을 높였다. 특히 스포츠 게임의 핵심인 물리 엔진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사실성에 보다 충실한 골프 게임으로 개발했다.

기존의 골프 게임들이 각 홀을 도는 단순한 턴베이스 형식에 그치는 반면, '샷 온라인'은 RPG 요소와 커뮤니티 요소를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즉 자신이 선택한 캐릭터를 성장시킬 수 있으며, 다른 골프게임 유저와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게임을 열심히 하면 성적에 따른 포인트를 쌓게 되고, 해당 포인트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레벨이 상승해 캐릭터의 힘(str), 정확도(int), 인지력(sen), 기술(skil)의 성장 속성을 카울 수가 있다. 자신의 포인트에서 보다 비거리가 많이 나가기를 원한다면, 힘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캐릭터를 성장시키면서 대리만족을 느낄 수가 있다. 또한 게임 도중 채팅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외에도, 클럽하우스 개념의 광장 서비스를 통해 함께 부킹할 게이머를 찾거나 클럽이나 골프공 등의 거래가 가능해 자연스럽게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가 있다.

SBS 골프닷컴은 현재 '샷 온라인' 클로즈베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3월에 오픈베타 서비스를 거쳐 6월에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상용화할 예정이다. **SBS**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자동차 안에서 라디오를 듣는 청취자나 휴대형 라디오를 이용하는 청취자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사연신청이 가능해져,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M세대들에게는 기존의 사연신청 방법보다 훨씬 자유롭고 간단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억의 Best Of Best' 오픈



www.sbs.co.kr 사이트 내 TV존에서는 새해를 맞아 네티즌이 직접 추천한 명 장면과 명대사를 선보인다.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에 걸쳐 네티즌들로부터 드라마, 예능 등 SBS 프로그램 장르별로 가장 기억에 남는 명 장면과 잊을 수 없는 명대사를 추천 받아 이 가운

데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드라마 한 편, 예능 프로그램 한 편 등 2편의 스페셜 VOD를 '추억의 Best Of Best' 코너에서 선보인다. 이 서비스는 유료로 제공되며 한 편당 500원이다.

「천국의 계단」 포토 페스티벌 이벤트



드라마 「천국의 계단」 홈페이지에서는 포토 페스티벌 이벤트를 1월 한 달 동안 진행한다. 참가자들이 「천국의 계단」의 무대가 되고 있는 롯데월드 내 회전목마와 그 옆에 있는 벽화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드라마 홈페이지의 포토 페스티벌 게시판에 올리면, 이 가운데 매주 5명을 뽑아 롯데월드 자유이용권을 선물로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www.sbs.co.kr을 참조하세요!



727이 드리는 최대 행운



★ 행운 1 - 2003년 최고의 드라마 3편 전회 무료 관람!



★ 행운 2 - 영화 무제한 관람



★ 행운 3 - 727 얼짱~「남궁연의 고릴라디오」출연!

-제작진이 엄선한 727 얼짱! 「남궁연의 고릴라디오」 '오작교 프로젝트' 전격 출연! 1월 15일입니다.

★ 행운 4 - 올해의 추억 사진전

-연인, 친구, 가족과 함께 한 사진을 예쁘게 편집하여 올려주세요!
100분께 파riba게뜨 케이크 상품권(1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727이 드리는 최대 행운



● 전문가에게 배우는 임신·육아 정보

매일유업이 함께 하는 유익하고 재미있는 임신·육아 동영상! 이제 전문가가 전해주는 똑똑한 임신·육아 정보를 727 파워 콘텐츠에서 만나보세요!

BC카드 TOP 포인트로 727 멤버 되자!



BC카드 TOP 포인트로 727 멤버십 상품권 '레드/그린'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그린 : TOP포인트 20,000점
- 레드 : TOP포인트 12,000점



2004년 2월까지 가입하시는 회원

님께 2만원 상당의 식사권을 드리고, 그 중 60명을 추천하여 BC기프트 카드 5만원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http://point.bccard.com>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1월 이벤트 소식



◆아심찬 프로젝트! 727 회원 초청 정수, 진영의 DSM Project 쇼!

이정수, 권진영이 선사하는 색다른 재미와 더 붙여 감동까지 전해줄 수 있는 버라이어티 콘서트! 60쌍을 초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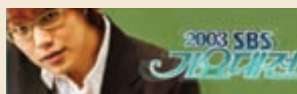


◆e천사 - 영화처럼 살자!

TV 다시보기 쿠폰을 구입하신 727 멤버십 회원님께 스타식스 정동극장 영화티켓을 드립니다.

- 10회권 구입 시 - 영화티켓 1매
- 20회권 구입 시 - 영화티켓 2매
- 50회권 구입 시 - 영화티켓 4매

● 12월에 이런 이벤트가~!



「웃·찾·사」의 새 얼굴 새로운 웃음, 새로운 개그, 우리가 책임집니다!

지난해 12월 24일, SBS 등촌동 공개홀에서 열린 「2003 SBS 개그 콘테스트」에서 '단무지 브라더스'가 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콘테스트에서는 전체 지원자 920여 팀 가운데 서류전형과 1, 2차 예심을 거쳐 3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본선에 진출한 9개 팀 31명의 예비 개그맨들이 열띤 경합을 벌였다. 이번에 입상한 7개 팀 25명의 신인 개그맨들은 1월부터 SBS TV의 「웃음을 찾는 사람들」에 투입되어 색다른 감각의 개그를 선보이게 된다.



대상 🌟 단무지 브라더스

복잡한 세상을 단순하게 사는 두 남자의 인생 이야기. 나이트 부킹을 소재로 여자에게 작업하는 방법을 코믹하게 엮었다. 이야기를 힘 있게 끌어나가는 노련함과 좌절을 압도하는 카리스마, 그리고 개성 있는 캐릭터 설정이 돋보인다. (김태현, 이강복, 장경희, 김형은, 김신영)

금상 🌟 병아리 유치원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놀이 활동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어린이들 사이의 갈등을 조폭의 말투와 행동 등을 흉내 내 익살스럽게 엮었다. (김재우, 엄승백, 심진화, 윤진영, 김필수)

은상 🌟 하지마



지금까지 TV에 등장했던 유행어를 이용해서 장군들의 작전회의를 진행해 나간다. 4명이 번갈아가며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간다. (이종규, 권성호, 이동규, 정현수)

은상 🌟 APT 경비대



아파트 경비대원들이 관리사무소 앞의 껌딱지를 떼는 작업을 하는데, 후레시맨으로 변신해 엄청난 임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묘사해 웃음을 전해준다. (김대훈, 황영진, 최재욱, 조우용)

동상 🌟 춘식과 동식



바보 형제들의 이야기, 수학공식과 혈액형을 소재로 코믹하게 엮었다. (최기섭, 박충수)

동상 🌟 올드보이와 아톰



아톰에 대한 궁금점을 올드보이의 질문과 아톰의 대답을 통해 재미있게 풀어간다. (김기욱, 김홍준)

동상 🌟 한밤의 TV연예



연예정보 프로그램 「한밤의 TV연예」를 패러디한 코너. (김일희, 윤성환, 박상철)

Television

주간 기본 편성표

월	화	수	목
AM 6:00 생방송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모닝와이드(2부) 7:30 생방송 모닝와이드(3부) 8:30 아침연속극 이브의 회원 9:00 휴먼 스토리 여자 9:3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 아침 10:40 뉴스와 생활경제 11:10 여자 플러스 11:30 시청자 제보-물은 생명이다 11:35 SBS TV 특강 PM 4:00 SBS 뉴스 4:05 오픈 스튜디오 4:50 세계 명작 동화 5:00 팽이대전 G 블레이드 5:30 유희왕 6:00 SBS 뉴스 퍼레이드 6:20 생방송 투데이 7:05 백만불 미스터리  8:00 SBS 8 뉴스 8:45 오늘의 스포츠 8:50 일일 시트콤 압구정 종갓집 9:20 일일 드라마 흥부네 박터졌네 9:55 대하사극 왕의 여자 11:05 아심만만-만 명에게 물었습니다 AM 00:15 SBS 나이트라인 00:45 스포츠와이드 00:55 SBS 골프	AM 6:00 생방송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모닝와이드(2부) 7:30 생방송 모닝와이드(3부) 8:30 아침연속극 이브의 회원 9:00 휴먼 스토리 여자 9:3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 아침 10:40 뉴스와 생활경제 11:10 여자 플러스 11:30 시청자 제보-물은 생명이다 11:35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PM 4:00 SBS 뉴스 4:05 오픈 스튜디오 4:50 세계 명작 동화 5:00 팽이대전 G 블레이드 5:30 유희왕 6:00 SBS 뉴스 퍼레이드 6:20 생방송 투데이 7:05 약이 되는 TV 8:00 SBS 8 뉴스 8:45 오늘의 스포츠 8:50 일일 시트콤 압구정 종갓집 9:20 일일 드라마 흥부네 박터졌네 9:55 대하사극 왕의 여자  11:05 최수종 쇼 AM 00:15 SBS 나이트라인 00:45 스포츠와이드 00:55 SBS 다큐멘터리	AM 6:00 생방송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모닝와이드(2부) 7:30 생방송 모닝와이드(3부) 8:30 아침연속극 이브의 회원 9:00 휴먼 스토리 여자 9:3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 아침 10:40 뉴스와 생활경제 11:10 여자 플러스 11:30 시청자 제보-물은 생명이다 11:35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PM 4:00 SBS 뉴스 4:05 오픈 스튜디오 4:50 세계 명작 동화 5:00 우주소년 아톰 5:30 포켓몬스터 AG 6:00 SBS 뉴스 퍼레이드 6:20 생방송 투데이 7:05 해결! 돈이 보인다 8:00 SBS 8 뉴스 8:45 오늘의 스포츠 8:50 일일 시트콤 압구정 종갓집 9:20 일일 드라마 흥부네 박터졌네 9:55 드라마스페셜 천국의 계단  11:05뉴스 추적 AM 00:15 SBS 나이트라인 00:45 스포츠와이드 00:55 프로농구 중계식	AM 6:00 생방송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모닝와이드(2부) 7:30 생방송 모닝와이드(3부) 8:30 아침연속극 이브의 회원 9:00 휴먼 스토리 여자 9:3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 아침 10:40 뉴스와 생활경제 11:10 여자 플러스 11:30 시청자 제보-물은 생명이다 11:35 여행 쇼! 일상 탈출 PM 4:00 SBS 뉴스 4:05 오픈 스튜디오 4:50 세계 명작 동화 5:00 우주소년 아톰 5:30 포트리스 6:00 SBS 뉴스 퍼레이드 6:20 생방송 투데이 7:05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8:00 SBS 8 뉴스 8:45 오늘의 스포츠 8:50 일일 시트콤 압구정 종갓집 9:20 일일 드라마 흥부네 박터졌네 9:55 드라마스페셜 천국의 계단 11:05 생방송 한밤의 TV 연예 AM 00:15 SBS 나이트라인 00:45 스포츠와이드 00:55 신용사회 만들기 

금

AM

- 6:00 생방송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모닝와이드(2부)
 7:30 생방송 모닝와이드(3부)
 8:30 아침연속극 이브의 회원
 9:00 휴먼 스토리 여자
 9:3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 아침
 10:40 뉴스와 생활경제
 11:10 여자 플러스
 11:30 시청자 제보-물은 생명이다
 11:35 금요 컬처 클럽

PM

- 4:00 SBS 뉴스
 4:05 오픈 스튜디오
 4:50 재미있는 TV 천국
 5:35 물은 생명이다
 6:00 SBS 뉴스 퍼레이드
 6:20 생방송 투데이
 7:05 진실게임
 8:00 SBS 8 뉴스
 8:45 오늘의 스포츠
 8:50 일일 시트콤 압구정 종갓집
 9:20 일일 드라마 흥부네 박터졌네
 9:55 주간 시트콤 형사



- 11:05 오피드라마 남과 여
 SBS 대토론 (월 1회)

AM

- 00:15 SBS 나이트라인
 00:45 스포츠와이드
 00:55 시네클럽

토

AM

- 6:00 토요일특집
 생방송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모닝와이드(2부)
 7:30 생방송 모닝와이드(3부)
 8:30 아침연속극 이브의 회원
 9:0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 아침 토요일스페셜
 10:00 생방송 잘 먹고 잘 사는 법
 11:00 SBS 가요쇼



PM

- 12:00 SBS 뉴스
 12:10 열린 TV 시청자 세상
 1:10 스타도네이션 꿈은 이루어진다
 1:50 스포츠 중계 및 재방송
 3:50 SBS 시트콤 스페셜 - 압구정 종갓집
 4:50 SBS 뉴스
 5:00 사랑해요 우리말
 서바이벌 참가 방패
 5:50 실제 상황! 토요일
 6:50 솔로몬의 선택
 8:00 SBS 8 뉴스
 8:35 오늘의 스포츠
 8:45 주말극장 애정만세
 9:45 특별기획 발리에서 생긴 일



- 10:55 그것이 알고 싶다
 11:55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AM

- 00:55 SBS 나이트라인
 1:05 게임 쇼! 즐거운 세상

일

AM

- 6:00 일요일특집
 생방송 모닝와이드(1부)
 6:50 생방송 모닝와이드(2부)
 7:50 염재호 교수의 시사진단



- 8:40 도전! 1000곡
 9:40 TV 동물농장
 10:50 결정! 맛대맛

PM

- 12:00 SBS 뉴스
 12:10 점속! 무비월드
 1:10 스포츠 중계 및 재방송
 3:50 생방송 SBS 인기가요
 4:50 SBS 뉴스
 5:00 사랑해요 우리말
웃음을 찾는 사람들



- 6:00 뷰티풀 선데이
 7:00 TV 장학회
 8:00 SBS 8 뉴스
 8:35 오늘의 스포츠
 8:45 주말극장 애정만세
 9:45 특별기획 발리에서 생긴 일
 10:55 생방송 세븐 데이즈
 11:55 영화 특급

AM

- 1:30 SBS 스포츠 빅 이벤트



2004년 1월 1일 현재

LOVE FM

FM 103.5MHz ● AM 792KHz

월~토

AM

- 5:05 유영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
- 6:05 정진홍의 SBS 전망대(1부)
- 7:00 아침 종합 뉴스
- 7:15 정진홍의 SBS 전망대(2부)



- 8:00 SBS 뉴스레이다
- 8:30 엄용수의 개그 세상
- 8:40 손범규의 스포츠 브리핑
- 9:05 손숙 · 김범수의 아름다운 세상
- 11:05 이봉원의 으랏차차 라디오

PM

- 12:00 낮 종합 뉴스
- 12:20 김학도 · 배철수의 와와쇼
- 2:00 SBS 뉴스 라인
- 2:20 컬투의 2시 탈출
- 4:05 오미희의 러브 FM
- 6:05 김홍국 · 박미선의 대한민국 특급쇼(1부)
- 7:00 저녁 종합 뉴스
- 7:20 김홍국 · 박미선의 대한민국 특급쇼(2부)
- 8:00 SBS 8 뉴스(TV수중계)
- 8:30 김성환의 서울 아리랑
- 10:05 낭만시대

AM

- 00:05 서민정의 기쁜 우리 젊은날
- 2:00 김지연의 뮤직토피아
- 4:00 김태욱의 쿵쾅! 노래는 트로트

일

AM

- 5:05 유영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
- 6:05 한수진의 책하고 놀자
- 7:05 이명천의 광고채널 1035
- 8:05 일요 기획-라디오 오디세이
- 9:05 손숙 · 김범수의 아름다운 세상
- 11:05 이봉원의 으랏차차 라디오

PM

- 12:00 낮 종합 뉴스
- 12:10 김학도 · 배철수의 와와쇼
- 2:05 컬투의 2시 탈출
- 4:05 오미희의 러브 FM
- 6:05 김홍국 · 박미선의 대한민국 특급쇼(1부)
- 7:00 저녁 종합 뉴스
- 7:10 김홍국 · 박미선의 대한민국 특급쇼(2부)
- 8:00 SBS 8 뉴스(TV수중계)
- 8:30 김성환의 서울 아리랑
- 10:05 낭만시대



AM

- 00:05 서민정의 기쁜 우리 젊은날
- 2:00 김지연의 뮤직토피아
- 4:00 김태욱의 쿵쾅! 노래는 트로트



월~일요일 ▶ 05:00~24:00 매시 정각에 뉴스

POWER FM

FM 107.7MHz

월~일

AM

- 5:00 송영길의 트로트 하이웨이
- 6:00 이혜승의 모닝 익스프레스
- 7:00 이숙영의 파워 FM
- 9:00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 11:00 심혜진의 시네 타운



PM

- 12:00 최화정의 파워 타임
- 2:00 이현우의 뮤직 라이브
- 4:00 허수경의 가요 풍경
- 6:00 박소현의 러브 게임
- 8:00 하하 · 몽의 영 스트리트
- 10:00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10! 10! 클럽



AM

- 00:00 정지영의 스위트 뮤직 박스
- 2:00 남궁연의 고릴라라디오
- 3:00 롤러 코스터의 Listen up!
- 4:00 이병희의 사운드 오브 뮤직

빙우

氷雨

山,
새로운
감성



감독 | 김은숙
주연 | 이성재 · 김하늘 · 송승헌
제작 | (주)쿠엔필름
개봉 | 1월 16일



알래스카의 전설로 남을 세 겹의 겨울연가!



국내 최초의 산악영화 한편이 탄생했다. 거대한 자연의 경외감과 장대한 스펙터클 속에서 하나의 눈꽃으로 피어난 가슴 시린 사랑 이야기!

잃어버린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는 전설을 품고 있는 아름다운 설산(雪山) 아시아크(Asiaq)! 걱정적인 옛사랑을 추억하기 위해 아시아크를 찾은 중현(이성재 분)과 쓸쓸한 외사랑의 기억을 잊기 위해 아시아크의 정상을 향해 오르는 우성(송승헌 분). 조난을 당해 얼음동굴로 피신한 두 사람은 죽음의 공포를 떨치기 위해 각자의 사랑 얘기를 풀어놓기 시작한다. 두 사람의 기억과 사랑이 조각조각 맞춰지면서 서서히 드러나는 한 명의 여자 경민(김하늘 분)!

죽음의 그림자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상황, 두 남자의 기억을 통해 완성되어 가는 세 겹의 사랑은 때론 안타깝게, 때론 절실한 빛으로 피어오른다.

그리움의 눈꽃 속에서 마침내 산(山)이 되어버린 사람들, 드라마가 살아있는 탄탄한 블록버스터! **SBS**

HD
TV

설 연휴를 SBS 영화와 함께



친구

감독 | 박경택, 주연 | 유오성 · 장동건
담당 PD | 김박, 방송 | 1월 20일 밤 10시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는 820만 관객동원의 신화. 누구든 가슴 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는 친구가 있을 것이다. 부산에서 태어나 성장한 준석, 동수, 상택, 중호의 어릴 적 우정이 아련한 필치로 그려진다. 이들은 성장한 뒤에 각자의 길을 찾아 떠나고, 준석과 동수는 서로 엇갈린 길을 택함으로써 비극의 결말로 치닫게 된다. 언제 봐도 가슴 벅찬 감동과 눈물의 휴먼 드라마.

20일



엑시트 운즈(Exit Wounds)

감독 | 안드레이 바르코비악, 주연 | 스티븐 시걸
담당 PD | 김박, 방송 | 1월 21일 밤 11시 5분

디트로이트에서 사건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5구역. 한 화학공장에서 500만 달러에 이르는 해로운 50킬로그램이 도난당한다. 경찰 오린 보드(스티븐 시걸 분)는 동료들에게서 마약과 연루된 비리의 흔적을 감지하고 조사를 나간다. 그는 마약 밀매업자 라트렐 워커(아시아 워싱턴 분)와 손잡고 경찰 수뇌부가 개입되어 있는 거대한 음모를 파헤쳐 나가는 데...

21일



택시도(The Tuxedo)

감독 | 케빈 도노반, 주연 | 성룡 · 제니퍼 러브 휴잇
담당 PD | 배숙현, 방송 | 1월 22일 밤 11시 5분

뉴욕에서 가장 빠른 택시드라이버 지미 통(성룡 분). 그의 환상적인 운전술을 눈여겨본 비밀 첩보국 CSA는 지미를 최고의 비밀 요원인 데블린의 개인 운전사로 스카웃한다. 어느 날 데블린의 차가 폭탄테러를 당하고, 지미는 CSA가 자랑하는 최첨단 비밀병기인 택시도를 손에 넣게 된다. 그런 지미에게 갑자기 택시도의 인공지능 통신을 통한 비밀 지령이 하달되는데...

22일



캐치 미 이프 유 캔(Catch me if you can)

감독 | 스티븐 스필버그, 주연 |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 톰 행크스, 담당 PD | 김하정, 방송 | 1월 23일 밤 9시 45분

1965년, FBI를 발각 뒤쫓아 놓은 사건이 발생한다. 5개 주 은행들을 순회하며 무려 140만 달러를 횡령한 최대의 사기꾼이 나타난 것. FBI는 베테랑 요원 칼트 행크스(톰 행크스)를 투입해 수사에 나서고, 번번이 놈의 속임수에 놀아나던 같은 마침내 범인의 정체를 알아낸다. 범인은 17세의 소년 프랭크 아비그네일레 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분. 드디어 둘 사이에 치열한 머리싸움이 전개되는데...

23일



광복절 특사

감독 | 김상진, 주연 | 설경구 · 차승원 · 송윤아
담당 PD | 김박, 방송 | 1월 24일 밤 9시 55분

광복절 특사로 석방되기 위해 출심한(?) 교도생활을 하는 모범수 재필(설경구 분). 그러나 애인 경순(송윤아 분)의 변심에 지극히 타락을 결심하게 된다. 재필은 빵 하나 훔쳐 먹다 감옥에 들어온 무석(차승원 분)과 함께 탈옥에 성공하는데, 마침 신문에서 자신들이 광복절 특사 명단에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들은 과연 광복절 특사로 멋지게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을까?

24일



동갑내기 과외하기

감독 | 김경형, 주연 | 권상우 · 김하늘
담당 PD | 배숙현, 방송 | 1월 25일 밤 9시 55분

아버지의 실직으로 인해, 과외과외를 해야만 하는 수완(김하늘 분). 그녀는 벼락부자집 장남인 지훈(권상우 분)의 과외교사로 들어가게 된다. 싸움꾼에다 학교 짱, 화려한(?) 전적을 자랑하는 동갑내기 지훈을 상대로 한 과외교습이 벌어지는데, 두 사람 주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사건들이 꼬리를 물며 벌어진다. 2003년 한국 영화계에 또 다른 지각변동을 불러온 코미디 영화.

25일

드라마 전용 일산 G스튜디오 개관

고품격 영상, 최고의 드라마를 선사하겠습니다!

드라마 왕국 SBS가 드라마 전용 스튜디오를 개관했습니다.

디지털방송 시대를 맞아 시청자들에게 품격 높은 영상미와 완성도 높은 드라마를 선사하기 위해 설립된 일산 G스튜디오는 지난해 12월 24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SBS 일산제작센터 내에 건축 연면적 595평, 3층 규모로 건립된 G스튜디오는 스튜디오 368평을 비롯해 남녀 분장실, 출연자 대기실 및 회의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관식에는 SBS 윤세영 회장과 송도균 사장을 비롯해 연기자 최지우, 권상우, 소지섭, 조인성 등 내외 귀빈



들이 참석해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ENG 카메라 전용 스튜디오로 SBS 드라마스페셜과 특별기획물이 제작될 G스튜디오에서는 현재 최고의 인기 드라마 「천국의 계단」과 지난 3일 방송을 시작한 「발리에서 생긴 일」이 한창 촬영 중에 있습니다. G스튜디오 개관으로 총 7개의 스튜디오를 갖추게 된 SBS 일산제작센터는 최첨단 시설과 장비를 갖춘 국내 최대의 종합 방송제작단지로, 계속

해서 감동과 웃음이 있는 SBS 프로그램을 선사해 나갈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동 신사옥에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보답하겠습니다

21세기 첨단 디지털 시대를 이끌어 갈
SBS의 신사옥이 드디어 목동에 우뚝섰습니다.
인간중심의 방송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SBS는 이번 목동 신사옥 시대를 열어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방송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며 시청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